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장근영 · 김혁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저 자 장근영, 김혁진

연 구 진 연구책임_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집 필 진 김혁진(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사업 이후 2025년 현재 355개소로 확대되었으나, 다른 돌봄·방과후 사업의 고도화와 학교 중심 돌봄 강화 속에서 초기의 종합서비스·활동 중심이라는 차별성이 약화되었고, 법·재정·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 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

■ 연구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 분석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수요 확대방안을 모색
- 전체 돌봄사업 사업에서 교육부의 돌봄교실 사업 등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지역 청소년활동정책전달체계 내 정착방안의 모색

■ 연구방법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책보고서, 정책통계 등을 분석하여 방과후 활동 수요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분석
- 우수 사례 지역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장전문가 대상 초점면담연구(FGI)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의 모색

■ 연구결과

● 사업 성격·전략 수준의 문제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목표로 하나, 돌봄·복지·활동 가치가 뒤섞여 정체성이 불명확해지고 '시혜적 돌봄' 이미지가 강화될 위험
- 사업명 '아카데미'가 학습·강좌 이미지에 치우쳐 청소년활동·성장 중심 사업이라는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법적 명칭·중장기 종합계획의 부재로 제도적 안정성과 전략성이 취약

● 운영체계의 문제점

- 프로그램 구조와 반 편성(20명 기준), 연 230일·주 20시수 운영 등은 20년 가까이 학교 교육과정형 시간표를 거의 유지해 "학교 밖 또 다른 학교"가 되는 한계를 낳고, 학원·다른 돌봄과 병행하려는 청소년에게 참여 부담으로 작용
- 체험·학습 선택유형 도입, 일부 시수 완화 등 부분 개선은 있었지만, 수요자(학부모의 학습 요구 vs 청소년의 활동 선호), 도시·농촌 간 돌봄·콘텐츠 요구 차이, 디지털·AI·기후위기 등 새로운 의제에 맞춘 운영유형·콘텐츠 개편이 시급하며, 기관별 특성화 전략 역시 형식적이거나 편차가 크다는 문제

● 연계·인지도 수준의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늘봄학교 등 타 돌봄·방과후 정책이 프로그램 다양화·질 제고를 이루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연령·내용 면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효과성 조사에서는 학업·심리·역량 향상 등 긍정적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지만, 이 성과가 지역사회·광역·국가 단위에서 충분히 공유·홍보되지 않아 사업 인지도와 참여·연계 확대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지원·인력 체계 수준의 문제점

- 중앙지원 조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위상은 위탁사업·소규모 인력 구조에 머

물러 방과후 활동 전반을 책임지는 '지원센터' 수준의 장기 비전·고유 기능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의 전달·협업체계도 충분히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

- 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계약직 중심 구조, 높은 감정노동·행정 부담, 제한적인 직무교육 시간과 비체계적 교육과정, 지역·시설 간 디지털·문화·전문인력 자원 격차 등으로 운영인력의 소진과 역량 편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 청소년의 경험 격차로 직결되므로 직무체계 재설계와 지역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 시급

■ 정책제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단순 돌봄이 아니라 청소년 주도 성장·체험을 지원하는 종합 성장지원 모델이자 전국적 청소년 성장 인프라의 '원형 모델'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고 현황조사, 기존 연구, FGI 등을 토대로 4개 영역(전략체계, 운영체계, 연계체계, 지원체계), 12개 현안과 세부 정책제언을 도출

● 전략체계 분야

- 법적 근거(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의 핵심가치를 '돌봄'이 아닌 '전인적 성장·발달'에 두고, 사업 개념·명칭·운영모델을 성장지원 중심으로 재편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라는 5년(우선 3년)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해 국가 비전·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앙·지자체·운영기관의 역할·책무를 체계화하며, 지자체 수요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빅데이터화로 지역수요 발굴과 지특회계 전환(2026년) 이후 확산 기반을 마련

● 운영체계 분야

- 청소년인구 감소·학습수요·지역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최소 운영기준을 유지하면서 인원(예: 반당 15명 이상), 운영일수(230일 재검토), 출석방식(주 5일 고정 → 주 3일 공통체험+2일 자율학습 등) 등을 유연화한 '자율형 운영모델'을 도입

- 고정형 참여모형에 더해 이동형, 프로젝트형,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지역시설 활용형 등 '참여자·공간 가변형' 운영모형과 자유공간·청소년카페 기반 자율형 모형을 병행하고, 미디어·문화예술·생애전환기·학교밖청소년 등 주제·대상별 '특화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거점 수준으로 육성

● 연계체계 분야

-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방과후 사업과의 통합이 아니라 기능·대상·운영철학의 차별화를 전제로 한 역할 분담과 연계를 추진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기반 장기·통합 성장지원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
- 효과성 조사, 사례 발굴, 핵심성과지표(KPI) 도입, 인증형 평가·컨설팅, 전국·지역 단위 홍보 및 인식조사 등을 통해 '성과·영향 중심 성과관리 + 인지도 제고'를 강화하고,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허브로 한 운영기관협의체·네트워크를 실무조직 수준으로 운영

● 지원체계 분야

-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명시하고, 중앙·시도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평가·교육·연계 기능을 전담하게 하며, 기초지자체·권역별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 밀착 지원·전문인력 풀·장비 공동은행 등을 운영
- 행정업무 간소화·디지털화, 급여·복지 개선, 힐링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결합한 소진 예방, 표준 교육과정·역량기반 연수, 운영일수와 연계된 교육 보장 등으로 운영인력의 소진을 줄이고 직무역량·지속성을 높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차 례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연구보고25-수시0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
3. 연구 방법 ····· 5

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황과 한계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 ····· 9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계 ····· 11
   1) 전략체계 분야 ····· 11
   2) 운영체계 분야 ····· 18
   3) 연계체계 분야 ····· 31
   4) 지원체계 분야 ····· 35

Ⅲ.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FGI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및 방법 ····· 41
2. 조사내용 ····· 42

3. 조사결과 ····· 43
4. 요약 및 결론 ····· 78

Ⅳ. 정책 제언
1. 전략체계 분야 ····· 84
2. 운영체계 분야 ····· 89
3. 연계체계 분야 ····· 96
4. 지원체계 분야 ····· 102

참고문헌 ····· 111

부록 ····· 115

국문초록 ····· 123

ABSTRACT ····· 125

표 목차

표 Ⅱ-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지원 수 ····· 17
표 Ⅱ-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영역 기준 비교 ····· 19
표 Ⅱ-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표 예시(안) 비교 ····· 21
표 Ⅱ-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유형 및 인원수 기준 ····· 22
표 Ⅱ-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선택형 운영과정 기준 ····· 25
표 Ⅱ-6. 주말형 프로그램 주제 예시 - 특성화 전략 프로그램 사례 ····· 30
표 Ⅱ-7.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분석 - 학업영역 ····· 32
표 Ⅱ-8.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분석 - 핵심역량 ····· 32
표 Ⅲ-1. 조사대상 ····· 42
표 Ⅲ-2. 조사내용 ····· 42
표 Ⅳ-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언 ····· 83

그림 목차

그림 Ⅱ-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 전략 및 프로젝트 구성요소 ···· 29
그림 Ⅱ-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 체계도 ····· 34
그림 Ⅲ-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계기 ··· 43
그림 Ⅲ-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역할 ····· 46
그림 Ⅲ-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학부모 수요 현황 ····· 51
그림 Ⅲ-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최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 변화 ····· 57
그림 Ⅲ-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요도 ····· 60
그림 Ⅲ-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 62
그림 Ⅲ-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 ····· 65
그림 Ⅲ-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 67
그림 Ⅲ-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역할 및 개선사항 ···· 75
그림 Ⅳ-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체계 모형(안) ····· 104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적성 계발, 예체능,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일부 범주(학습, 돌봄)에 집중되어 있고 선택 폭과 접근성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수요 및 현황조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2024)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약 22%가 방과 이후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며, 소외계층에서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따라서 방과 후 활동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의 질적 혁신을 위해 청소년 욕구 구조 및 실제 활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가장 대표적인 방과 후 활동 사업이지만, 지역별·기관별 개소수와 운영 방법(프로그램 질, 인력, 예산 등)이 큰 편차를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및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농어촌·취약지역은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접근성, 프로그램 다양성, 서비스 질·효과에 지역 간 격차로 인해 동일 연령대 청소년 간에도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과 활용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전국적 실태를 정량·정성 데이터로 분석하고, 제도적 위상 강화와 전국적 균형,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보호자의 욕구와 지역 실태를 반영한 맞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국회예산정책처, 2021),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현장의 수요와 정책 설계 사이의 괴리, 서비스 대상 및 제공 방식의 중복과 자원 비효율, 사각지대 지속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1; 통계청, 2023)한다는 지적 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 중 대부분은 이미 정책에 반영되어 문제점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실제 자료와 연구 결과에 근거한 지속적인 정책 효과성, 타당성의 검토와 보완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수요와 현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둘러싼 공급의 적절성을 포함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지역·계층 간 불평등, 프로그램의 질의 불균형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권과 실질적 복지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자체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수요 확대 방안

2026년도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이관되는데 지특회계의 사업 예산은 지자체 사업 수요조사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전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지역 내 청소년시설 수와 비교하여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규모(355개)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잠재수요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지자체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예산을 많이 요구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과의 교통정리, 연계협력 방안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온종일돌봄 교실사업과 서비스 내용과 대상에서 중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향후 범정부차원에서 돌봄사업을 통합하게 될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돌봄교실과 어떻게 차별성을 구현하고 고유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이 두 사업은 대상자의 연령이나 운영 방식 (비용부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돌봄교실이 중복되는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신 돌봄교실이 선택되는 현상이 보고된다.

따라서 만약에 교육부 주도의 늘봄학교/온종일돌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성되었을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명확한 역할과 영역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부의 돌봄사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차별화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역할 분담까지 포함한다.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내 정착 방안

원칙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지자체의 별도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와 현장 운영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 중앙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은 있으나 각 지역단위에서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총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달 체계 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이나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학술연구, 정책보고서, 정부 간행물 등을 분석하여 방과 후 활동 수요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2)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우수 사례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장 전문가 대상의 FGI를 통해 현장 중심 의견 수집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3)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시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과 한계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계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과 한계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현황[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에 46개 청소년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6년부터 전국 지역별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100개소를 운영하였고, 2025년 현재 3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업시작 초기단계에서는 청소년이 1년간 매일 상시 참여를 통해 개인적인 면담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경험까지 다양한 활동과 영양중심의 급식과 안전한 귀가에 이르는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강점을 갖고 있었다.

이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은 다른 방과 후 교육이나 돌봄 지원 사업에서도 반영이 되면서 돌봄 기능 중심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돌봄교실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비중이 높아지거나 생활지원 서비스가 점차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가지고 있던 차별성이 점차 축소되었다. 2014년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 부처 간 돌봄사업 운영의 연계와 조정에 대한 노력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사업규모나 운영지원 여건 등에서 국가 전체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설정 시 지역사회에서 참여대상의 중복 등으로 인해 상호 협력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수 확장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방과후돌봄교실 기반의 방과 후 지원 사업이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설 수 차원에서 매우 소수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책적 효용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 2장은 김혁진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정책적으로는 국가의 돌봄사업 확장과 함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돌봄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청소년활동 중심의 정책방향이나 사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영역으로는 "1.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1.4학교안팎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반영되었으나(관계부처합동, 2023.37), 이전에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 영역으로 분류한 시기도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정책은 청소년활동 부서에서 담당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이원적인 형태로 관리되었었다.

또한 초기부터 고민 요소였던 부모의 학습 요구와 청소년의 활동 요구의 간극 문제는 중등과정 운영기관 확산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아카데미라는 개념이 청소년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으나 당시는 수요자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하나의 연계 고리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정책사업명으로 정착되면서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센터의 강좌중심 아카데미 사업과 유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초기 단계에 설계한 운영 시스템은 일종의 표준운영과정처럼 전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적용되었다. 프로그램 운영체계나 운영일수, 시수기준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체계와 유사하여 학교 수업 후의 방과 후 활동이 아닌 또 다른 학교로 등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었다. 일주일 전일 출석해야 하는 운영방식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사업초기 검토단계에서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전일 활동지원과 안전한 활동여건이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에 비해 장점 요소로 작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한 운영기관 담당자 FGI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매주 전일동안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학원 학습 등 개인 시간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장 FGI 조사결과 참조). 운영인력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처우에 대한 대책이나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대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다만,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운영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의 흐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 수요자의 요구 분석, 현장 운영자들의 제언을 통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영역별 편성구조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단가 관리방식을 변경하였고, 사업초기 모든 업무에 대해 적용된 평가지표를 성과중심 지표로 축소하고 일상 업무는 행정기관의 점검대상으로 전환하였다. 개인적으로 학원 수강 등 별도 학습이 필요한 경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 이수시간을 경감하는 유연한 운영방안도 운영지침에 반영되었다. 이처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 현장진단이나 평가결과를 반영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5년 이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 운영과 미래지향적 비전과 목표를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종합적인 운영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한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속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 또는 현안을 도출하여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 요소로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개선방안이나 정책적 대안을 연계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전략체계'로 사업의 정체성이나 법과 제도 기반의 운영,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운영체계'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내부의 운영 시스템이나 성과 관련 현안을 살펴보았다. 셋째는 '연계체계'로 다른 돌봄정책 사업이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와의 연계 관련 현안을 살펴보았다. 넷째는 '지원체계'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역량향상과 관련된 지원조직이나 운영인력 지원, 지역 간 편차에 관한 현안을 살펴보았다.

1) 전략체계 분야

(1)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으로서의 성격 약화-정체성과 타당성 측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핵심가치와 정체성 및 성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적은 무엇인가? 청소년활동 정책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과 후 활동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자.

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목적 – 돌봄과 성장의 가치와 관계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에 제시된 사업의 목적을 보면 방과 후, 돌봄, 종합서비스,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전인적 성장, 사교육비 경감, 양육 부담 완화 등 청소년 양육에서 통합적 성장까지 다양한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의 목적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핵심가치나 사업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다소 어렵다. 문제는 청소년활동이 지향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성장의 가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사업목적에 반영된 키워드를 보면 '성장'은 사업의 가치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인적 성장의 요소를 활동 영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활동과 복지, 보호라는 청소년정책 전 영역을 포괄함으로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대상은 당초 취지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전에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는 다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대상기준이 홍보자료에도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방향에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 목 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의 인식 확산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연계체계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 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4.

현재 국가의 아동 및 청소년 돌봄정책 기준으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돌봄사업의 하나로 분류된다. 아동 또는 청소년, 학생 돌봄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정책적 타당성이나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돌봄사업의 통합적 관리나 병합에 대한 정책 추진 시 사업 유지에 상호간 문제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아동 및 청소년

중심 돌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정책과제로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돌봄'의 개념에 대한 광의적 해석과 협의적 해석에 따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격이 달라진다. 광의로 본다면 모든 청소년의 삶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활동이지만, 협의로 본다면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나 집단의 청소년을 수혜자로 보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시혜적 개념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돌봄'에 대한 경험이나 실제 사업내용은 면담과 상담, 개인 정서 관리, 급식과 건강 등 단어 그대로 생활을 돌보아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기능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중요한 기능이다. 운영기관 담당자 FGI 결과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그램 경험도 중요하나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일상의 돌봄 기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도 돌봄은 기본요소로 중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3장 FGI 조사결과 참조).

청소년 지원 관점의 돌봄 개념이 청소년정책 내부에서도 사업 분류 기준으로 적용된 기간이 있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계기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아니라 나 홀로 지내는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맞벌이 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중심이었다. 초기 운영모형은 수익자 부담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일반형', '혼합형'과 전액 무료로 지원하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원형'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부담이 포함된 일반형이나 혼합형은 운영이 폐지되고 전체 사업이 무료 참여에 의한 지원형으로 운영되었다.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기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상중심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사업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정책계획과 수행은 청소년활동 부서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담당하였다. 현재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정책영역 기준으로는 청소년활동 정책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상중심 정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복지지원 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취약계층 우선지원과 취약계층 전용 복지지원 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전제로 설계된 사업이었고,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대상 특수성이 협의의 돌봄 기능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 개념도 취약계층 전용 돌봄이 아니라 성인과 지역,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돌봄의 대상이다. 문제는 시혜와 수혜 관점의 제한적 돌봄 지원중심으로 기능이 제한될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또는 독자적으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주도적 성장'이라는 청소년활동의 핵심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에서도 시혜와 수혜의 관점을

벗어나 주도적이고 모두를 위한 복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성장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통합한 '성장'이라는 포괄적 가치를 전제로 청소년의 삶에 필요한 지원 영역의 하나로 돌봄 기능이 중요한 요소가 포함된다. 성인으로부터의 돌봄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봄의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돌봄의 개념도 성인 관점이 아닌 청소년 주도와 성장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체성과 성격 – 사업명의 재검토

다음으로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격에 혼동을 주기도 하고 정책적 지향점이나 사회적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사업명이다.

2005년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일반 부모들도 관심을 갖게 하는 (학습 요소도 반영된) 명칭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 방과 후 사업 추진배경은 경제적 취약계층 전용 사업이 아니라 맞벌이 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비롯한 방과 후 나 홀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익자 자부담에 의한 참여 유형이 폐지되고 무료로 운영되는 지원형 체제만 운영되면서 당초 명칭 사용의 취지나 근거가 약화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본다면, 사업초기 일정기간만 이 명칭을 사용하고 당초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제안자의 목적이나 방과 후 활동 정책이 지향할 가치를 담은 사업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현재는 20년 이상 정책사업명으로 사용하다 보니 모두에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아카데미'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는 곳이 '학습' 중심 공간이나 기관들이다보니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 성장의 가치가 현재의 사업명으로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 강좌 운영 프로그램과 같은 용어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관심이나 참여 동기 유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정경은 외, 2024,p.180). 따라서 사업명이 청소년 중심의 방과 후 지원 사업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야 한다.

(2) 법과 제도에 따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관리 부재

① 법적 근거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설'이나 '단체'가 아닌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점은 사업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구로서 운영의 지속성 담보에 더 유리하다. 이에 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정책의 변경이나 지자체나 운영기관의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사업이 일몰되는 사례들도 있다. 또한 총괄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성평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규정과 달리 개별적인 정책사업명이 법령에 명칭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5의 규정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는 사업명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업추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하지만 법령상의 제도적 사업 명칭은 아니며 법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법적 규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업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사업 추진시 법적 시설 명칭이나 사업명을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 사례도 참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중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법적 유형은 유지하되 개별 시설의 명칭은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센터로 조정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청소년육성계획이 아닌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름으로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도 법적 근거로 본다면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정책사업이 된다. 하지만, 동법 규정은 내용상 개별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현재의 법령 규정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포함한 보다 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정책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종사자 신분과 처우에 관한 것이다. 시설, 센터 등 기관 종사자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기준의 규정 반영에

한계가 있고, 인건비는 일부 인상되나 제한된 사업비에 의한 급여 기준으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같은 연봉체계나 급여체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난 2~3년간 사회복지사 처우가 높아지면서 처우의 역전 수준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조직 내에서도 수련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 활동 사업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종사자 간에 격차가 생겨 심한 경우에는 배치청소년지도사보다 방과후아카데미팀 팀장의 처우가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격차 발생 시 내부 지침에 의해 기본급 이외에 추가 수당으로 임금과 처우 격차를 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전달체계가 지역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면 우선 법·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근거부터 구축해야 할 일이다.

② 중장기계획 기반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나 사업명의 일치와 반영 여부도 중요하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가치와 비전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발전계획 또는 중장기 종합계획 등 문서로 공식 결재되고 공표된 중장기 정책계획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3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국가단위와 광역단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강행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의 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출처: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

중장기계획 차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운영계획'이나 법령상 명칭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 부재한 점은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계획으로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은 추진일정 중심 로드맵이 아닌, 사업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전략, 진단 평가에 의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사업과 추진체계를 포함한다.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은 법령과 정책계획을 근거로 예산이 반영된 구체적 사업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중장기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은 문서 작성을 위한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과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공식 자료이다. 중장기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공유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정책 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운영과정에서 국가의 계획이 있어야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실행계획 수립, 과제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3) 사업비 재원 변경에 따른 지역수요 확보와 지속성 확대 문제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사무 이양 등 지방중심 정책운영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6년부터 재정지원 체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자체 수요의 발굴과 지속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지특회계 사업의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로 사업예산이 결정되므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고 운영 시설 수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 II-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도별 지원 수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원 (개소)	200	200	244	250	250	260	280	304	332	342	350	355
참여인원 (명)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12,341	13,145	14,059	14,588	14,712
국고예산 (억 원)	161	144	184	185	185	197	224	226	282	290	313	311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 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5.

2025년 현재 355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고,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 매칭 펀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이 유지된다면 당분간은 현행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운영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제약요인도 검토해야 한다. 국고 예산 범위에서 신청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수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 참여도에 따라 확산의 계기도 될 수 있다. 반대로 지방비 확보 문제나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변화, 운영기관 확보나 지원의 어려움 등 다른 이유로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정책사업으로 타당성이나 동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시 시설 수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가능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203개소), 청소년문화의집(363개소), 청소년특화시설(14개소)은 총 580개소로 시설 수로만 보면 확산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동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고 지도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자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매칭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규모나 재정 지원 여건도 한계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군 단위 지역은 입지조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미 참여 가능한 곳은 어느 정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의 청소년이나 부모,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아니라 지역정책 성과관리나 평가에 유리하거나 지역의 호응도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 사업 참여 확대 동기가 될 것이다. 지자체간 성과의 공유를 통해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특회계 이관 후 지자체 관심이나 수요가 높아진다면 확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2) 운영체계 분야

(1) 운영일수 등 구조화된 매뉴얼형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대안 필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대상으로 운영지침과 업무매뉴얼이 제공되며, 해당 기관은 지침을 준수하면서 매뉴얼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비교적 초기단계에 운영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구조화된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평가와 컨설팅,

직무연수, 운영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어 신규 운영기관에서도 매뉴얼 활용시 운영관리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운영지침의 경우 영역별 프로그램 시수의 자율적 조정이나 예산 활용 방식 변경 등 일부 개선조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리중심으로 구조화되거나 경직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운영매뉴얼의 경우 당초 개발 시에는 현장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고, 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기본 틀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행정지침 외에 업무용 매뉴얼의 방안이나 사례는 참조용이며, 모든 내용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지침은 아니다. 개별 기관에서는 운영 시스템 안정화 이후에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운영방법의 창의적인 개발과 시도가 가능해야 매뉴얼 활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① 프로그램 편성 기준: 영역 및 시수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은 활동 영역과 학습 영역을 기반으로 행정적인 운영지침과 예산편성 지침 등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설계하였다.

2005년 사업 시작 이후 기본적인 구성 체계는 당시 교육과정이던 제7차교육과정에 의한 학교교육과정의 체계와 유사하였고, 이러한 틀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화에 도움이 되었다. 이후 일부 프로그램 편성에 자율성이 부여되었으나(예 : 운영지침에 체험활동 중심 운영과 학습지원 중심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선택과 변동 방식이 예시됨), 전체적인 구조는 부분적인 변경 외에 기본 틀은 유지가 되었다.

표 II-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영역 기준 비교

<table>
<tr><th colspan="2">학교 교육과정</th><th colspan="7">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영역 및 편성기준</th></tr>
<tr><td>제7차
교육과정</td><td>2009
개정 이후</td><td colspan="2">2010년</td><td colspan="2">2013년</td><td colspan="3">2025년</td></tr>
<tr><td rowspan="2">교과</td><td rowspan="2">교과(군)</td><td rowspan="2">기본공통
(학습지원)</td><td>교과
학습</td><td rowspan="2">학습지원
(기본공통)</td><td>교과
학습</td><td rowspan="2">학습
지원</td><td colspan="2">교과학습과정</td></tr>
<tr><td>자기
주도
학습</td><td>자기
주도
학습</td><td colspan="2">보충학습지원</td></tr>
<tr><td rowspan="2">재량활동</td><td rowspan="4">창의적
체험활동</td><td rowspan="2">재량활동
(자율체험)</td><td rowspan="2">주중</td><td rowspan="2">자율체험</td><td>주중</td><td rowspan="4">체험
역량
강화
활동</td><td rowspan="2">자기개발</td><td>주중</td></tr>
<tr><td>주말</td><td>주말</td></tr>
<tr><td rowspan="2">특별활동</td><td rowspan="2">전문체험</td><td>주중</td><td rowspan="2">전문체험</td><td>주중</td><td rowspan="2">체험활동
(전문체험)</td><td>주중</td></tr>
<tr><td>주말</td><td>주말</td><td>주말</td></tr>
</table>

학교 교육과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영역 및 편성기준			
		특별지원	특별지원		정규과정 외 특별지원 (캠프, 특강 등 지원, 보호자 프로그램 등)
		생활지원	생활지원	생활 지원	급식, 상담, 건강관리, 생활일정 관리 등

※ 출처: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s://ncic.re.kr/dwn/ogf/제7차교육과정, 2022개정 교육과정(총론)에서 인용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201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p.66.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201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p.26.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p.67~70.

* 학교 교육과정 교과 외 활동의 분류
- 재량활동 : 교과재량, 창의적 재량
- 특별활동 :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화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 (2009개정)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022개정)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5년 편성 기준 : 주말 체험은 반기별 2회 필수, 주말 자기개발은 필요시 운영
특별지원 중 캠프는 권장(자율), 보호자 프로그램은 연 2회 이상 필수 운영

2013년과 2025년 프로그램 편성 예시(안)을 보면 2013년은 매일 5시간 기준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 현재는 매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20년 운영기간동안 작성된 주별 프로그램 편성표는 시수 차이는 있으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교과학습과 체험활동 시수의 편성구조는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구성된 학교의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수업시간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 방과 후에 이어지는 학교 밖 학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별 운영시간 기준이나 프로그램 영역 기준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 청소년 중심의 자유로운 활동 운영 방식이 도입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운영시간의 경우 주중의 활동 시간과 학습 시간 중심으로 급식시간을 포함하여 1일 4시수 기준으로 1주당 20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일부 개선 보완사항으로는 운영지침에 모집정원의 30% 내에서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가 가능토록 하였다. 대상은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학원 등 교습참석이나 별도의 돌봄서비스와의 중복을 허용한 점에 특징이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허용으로 수업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전체 청소년이나 전체 일정관리 방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표 Ⅱ-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편성표 예시(안) 비교

(예시1) 2013년 프로그램 편성 예시(안) (주말 운영시 주당 30시간, 주말자율 운영시 27~29시간)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율체험	전문체험	자기주도	주말전문체험 3주(4시간) 주말자율체험 1주(2~4시간) 급식(1시간)
2교시	교과학습	교과학습	자율체험	전문체험	교과학습	
3교시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4교시	전문체험	전문체험	교과학습	교과학습	전문체험	
5교시	전문체험	전문체험	자기주도	자기주도	전문체험	

(예시2) 2025년 프로그램 편성 예시(안) (주당 20시간, 반기별 2회 주말체험 운영시 주당 25시간)
-1안(블록수업, 주중체험 선택수업 운영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보충학습							
2교시	교과 A	교과 C (블록수업)	선택수업		선택수업		자기개발 (블록수업)	*반기별 2회 이상
3교시	교과 B		전문 A	전문 B	전문 C	전문 D		
4교시	저녁급식							

-2안(블록수업, 선택수업 미운영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저녁급식					
2교시	교과 A	교과 B	교과 C	교과 D	자기개발 A	*반기별 2회 이상
3교시	전문 A	전문 B	전문 C	전문 D	자기개발 B	
4교시	저녁급식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201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를 위한 업무매뉴얼. p.25.
- 업무매뉴얼의 주당 편성시수 기준으로 편성영역별 지침에 따라 주간시간표를 예시용으로 새로 작성함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p.71.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는 이유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외부 강사에 의존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활동 운영비 보다 주로 강사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자체 운영인력 진행시 강사비를 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지침에는 프로그램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정별 운영시수나 단가를 자율 편성하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자율성 인정 범위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강사 진행이 아닌 참여자 주도의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예산구조나 편성시간 체계도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운영기관에서는 기존의 강사 위탁 방식에 익숙하기도 하고, 운영인력 여건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

로 자체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운영방식의 도입을 어려워할 수 있다. 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인원수 기준, 운영일수 및 운영시수 기준의 경직성이 프로그램 체제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② 반별 인원 수 기준

1개 반 20명의 기본형 외에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인원 수 기준은 편차가 있지만, 반별 20명 단위 인원 수 기준이 2005년부터 유지가 되었다. 이는 사업초기에는 학교 반 인원수나 다른 프로그램 사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원 수였다. 하지만, 학교의 반별 인원 감축 등 청소년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3장의 FGI 결과 및 정경은 외, 2024, p.184 등 참조).

표 II-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유형 및 인원수 기준

운영유형		1개반	2개반	3개반
일반형	기본형	30명	40명	60명
	농산어촌형	30명	40명	60명
	장애형	-	15~20명	25~30명
	다문화형	-	30명	45명
	탄력운영형	15명	-	-
주말형		30명	-	-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11.

* 기본형, 농산어촌형, 주말형 1개반(30명)은 지역적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사전 승인(여가부 보고)에 따라 최소 20명 이상으로 예외적 운영 가능
* 주말형은 정원 30명 이내에서 프로그램별로 그룹화하여 운영 가능

도심 학교도 20명 내외로 반별 인원을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농어촌 학교의 반별 학생 수는 더 감소되었다. 현재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반별 인원수는 성인들의 과거 경험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청소년인구의 감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서비스 운영자의 숫자와 서비스 참여자의 비율이 중요하다. 학교 평가에서 교원 당 학생 수가 지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활동의 질도 청소년 수의 규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담당 지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의 수도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③ 연간 운영일수 기준

운영기관 담당자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하는 요소 중 하나는 운영일수 230일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운영기관 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학원 일정으로 인해 매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장 FGI 결과 참조). 운영일수는 운영기관의 운영일수가 아니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참여일수 기준은 곧 출석일수를 의미하는데, 운영일수 기준의 준수 여부가 평가에는 용이하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이 부분이 역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주당 20시간 운영시수 이수와 연계하여 일정 시간 이상을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다른 돌봄사업과 비교하여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서정아 외, 2024, 80).

□ 연간 운영일수 〔일반형〕
○ 기본운영 : 일 4시수, 주 5~6일 운영(일요일, 법정공휴일 휴일)
- 연간 총 230일 운영
  * 운영일수: 참여청소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일 수
○ 운영시수
- 주중활동 : 1주 20시수 이상(1주 20시수 기준, 급식 5시수 의무포함)
- 주말활동 : 반기별 2회 5시수 이상(급식포함)
  * 단, 주말체험활동(반기별 2회) 외 주말운영은 운영일수에 미반영
○ 정원 일부 단축참여 허용
- 모집정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주 15시수 이상 참여 가능(기관운영 시간은 동일, 청소년의 단축참여 허용)
  * 허용사유 예시 : 학원 등 교습참석, 질병치료, 별도 돌봄서비스 참여 등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230일에는 주중 운영일수와 연 4일 이상의 주말 운영일수가 포함되는데, 주말 운영이 활성화되어 주말 활동을 추가 운영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다(3장 FGI 결과 참조). 이는 보다 더 자율적이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주말체험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이에 대한 활동 기회도 더 확대되어야 하나 운영일수 기준으로만 운영시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렵게 된다.

연간 운영일수 기준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정의 법정 수업일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는 초·중등학교 수업일수를 190일로 규정하였으나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법정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제에 따라 기존 220일 이상이었던 수업일수가 190일로 감축된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방학기간 운영이 필요하기는 하나 현재 기준으로 학교보다 더 많은 일수로 운영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 출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한 법정 수업일수도 학교에 따라 증감이 가능한 것처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에도 학교의 운영방식을 참조하여 운영기관 자체의 운영일수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참여일수가 운영일수와 동일하지 않다면 운영일수 기준을 참여일수와 구분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일수는 프로그램 운영일수가 아니라 (시설과 같으면) 공간 개관 상태의 운영일수를 의미하고, 참여일수는 실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일수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영자들이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거나 직무교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업무는 수행되나 청소년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재량에 의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자율 출석활동 또는 학원 수업). 또는 현재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 시에는 운영일수 자체를 증감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2) 수요자 요구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 유형의 대응 시기 지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쉽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는 '학습'에 대한 학부모 수요를 체험활동 기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사업방향과 운영구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이다.

① 청소년활동 중심 사업의 정체성과 수요자의 학습 요구 문제

운영기관 담당자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은 학습 부담이 적은 흥미위주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학부모는 학습과 진로 탐색을 원한다는 상황을 재확인하였다(3장의 FGI 결과 참조). 또는 초등학생은 체험형, 중학생은 학습형에 대한 수요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항이다. 현행 운영지침에는 학습 수요도 인정하여 운영기관에서 체험활동 중심 유형과 학습지원 중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중학생의 경우 중도이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지적되었다(서정아 외, 2024, 80).

또 다른 변화 양상의 하나는 전문적인 경험에 관한 수요자들의 요구였다. 운영기관 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실무자들은 돌봄기능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기본적인 요소지만, 청소년과 학부모의 수요는 단순 돌봄보다는 전문교육과 심층 활동을 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와 달리 급식이나 안전에 대한 만족도 보다 수준 높은 활동의 경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표 II-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선택형 운영과정 기준

선택운영과정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체험·역량강화활동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특화)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디지털 체험활동,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 (일반)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ㅇ공통 운영과정(5시수) ㅇ선택운영과정(15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10시수) - 학습지원(5시수)
② 학습지원활동	► (공통)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특화) 보충학습, 교과학습 등 ► (일반) 역량개발, 진로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지역사회프로그램 참여 등	ㅇ공통 운영과정(5시수) ㅇ선택운영과정(15시수) - 학습지원(10시수) - 체험·역량강화활동(5시수)

* 출처: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12.

* 제시된 운영시수 편성은 예시로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초등과정이든지 중등과정이든지 학습력 향상이나 성적에 관한 요구는 애초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목적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이나 자원 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효과성 조사결과 학업영역의 사전-사후 점수 향상은 검증이 되는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

다(서정아 외, 2024, p.33). 하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공간 여건만 보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 환경 특성상 안정된 집중형 수업용 교실을 갖추기는 어렵다. 학습편차가 매우 큰 참여자 그룹이라면 동시에 동일한 강사가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개별 학습을 위한 자원은 지역에 따라서 활용 수준도 차이가 크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부터 지적된 것으로 체험형 교과수업이나 기초학력 중심 운영을 통해 일정부분 학습 환경 미흡이나 참여자간 학습편차 문제에 대응한 사례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내부의 자체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수요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시의성의 반영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요구

시대 변화에 따라서 AI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지원 플랫폼 등 새로운 수요에 대한 태도와 준비가 필요하다.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과 시의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활동, 진로특화 프로그램, 창의융합형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지원하기 보다는 개별 운영기관에 실행만 요구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할 설비 환경이나 전문 인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개별 기관의 노력에만 기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체제로의 전환과 AI 활용을 통한 활동과 학습 또는 업무수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전에 메이커 활동이나 기술 융합형 프로그램 수요와는 다른 수준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상에서 보편화된 디지털 문화 환경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기나 설비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기관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또 다른 시의성 요소는 디지털과 같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사회의 이슈로 이와 관련된 요구를 청소년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기후-생태위기나 인구 문제, 문화다양성 문제와 같은 시의성을 반영한 주제들도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요구의 지속성이나 범용성으로 본다면 미디어나 문화예술 등 콘텐츠 중심의 활동도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③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편차와 수요의 차이

3장에서 기술할 운영기관 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형 운영기관과 비교하여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기본적인 돌봄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른 수요의 편차로 해석할 수도 있다.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시지역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돌봄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있다는 반증이 된다. 가정의 돌봄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의식주 등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경험도 부족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도심지역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체험활동 환경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역 간 수요자 요인에 의한 편차도 있지만 운영기관 내부와 외부의 환경 여건에 따른 편차도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른 중점 서비스의 자율성이나 개별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능에 대한 지역별 지원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요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나 환경 지원이 부족한 것과 같이, 지역 간 편차의 문제도 현재는 개별기관에서 감당할 과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돌봄기능 수행시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른 지역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지역만의 운영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인정해주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운영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개별적 요구에 따른 지원 보다는 지원기관의 인력이나 예산관리, 사업 중심 컨설팅 등 보편적인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④ 학교중심 돌봄지원 체계 강화에 따른 대응 문제

앞으로도 학교중심 돌봄지원 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따라서 정책사업명은 변화할 수 있으나 국가 입장에서는 교육부 차원의 학교중심 돌봄기반 방과 후 교육사업이 전국적인 확장이나 대대적 홍보에 더 효과적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학교와의 연계방안 연구와 직접적인 연계 사업을 위한 시도가 다수 실행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수요 예상을 통해 문화적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 중학교 내 운영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제안도 있었다(황진구 외, 2023,p.110). 도심 내 학교공간도 유휴공간이 발생하고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되는 사례도 있어 학교 공간의 활용과도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연계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교육정책 연계나 운영모형 다양화의 사례는 되나 학교중심 돌봄사업 정책 확장 시 장, 단점 고려가 필요해졌다. 이는 학교 내 방과 후 돌봄사업 중심의 돌봄정책 통합 운영에 대한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요자 유형에 따른 요구의 편차나 요구 내용의 변화,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의 환경 여건과 수요의 차이,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미래사회에도 지속될 중요한 사회적 이슈, 학교 연계 등 연계대상 자원의 다양화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유형도 수요자 특성이나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유형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다. 일반형 운영유형으로 농산어촌형이 있고, 장애 및 다문화형 등 대상 중심 유형도 있다. 특히 참여청소년의 조건에 취약계층 기준을 두지 않는 주말형도 대안모형으로 반영되었다.

다만, 일반적 운영 기준에 지역 또는 대상 특성에 따른 운영기준이 일부 요소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해당 유형에 맞춤화된 운영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대체로 전자의 방식으로 적용되어 유형 간 특별한 구분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도심형과 농어촌형을 구분했고, 평가운영 연차도 별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단지 사업 실적 수 차이 인정만으로는 개별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장애 유형을 특별하게 운영한다면, 평가기준이 일반형과 방향과 구조부터 달라져야 운영에서도 차별성이 반영될 것이다. 특히 시의성을 반영하되 미래사회 대응형 특화 모형도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중 특화시설과 같이 주제 중심형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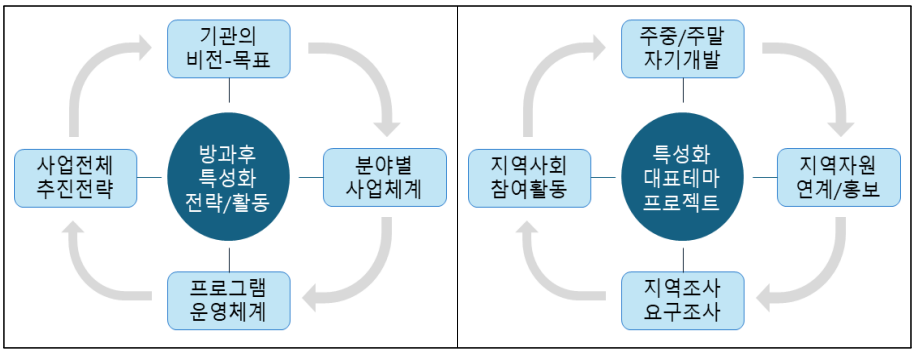
운영 유형 설정시 실제 대상이나 내용, 방법중심으로 특화된 유형 기준과 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 학습에 대한 수요의 편차(예:초등과 중등, 도심과 농어촌, 부모와 청소년)를 반영하여 수업일수 조정을 통한 새로운 운영유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학습을 제외한 활동중심으로 주중 운영일수를 줄이는 등 운영일수 기준을 현실적 수요 반응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자율적인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관별 특성화 방안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3) 운영기관만의 특성화된 콘텐츠나 운영전략의 편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뉴얼 및 평가지표에 반영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운영기관별 특성화 전략의 설정과 특성화 중심 활동의 연계와 운영'이다. 하지만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도 특성화 전략의 부재나 실행성과에 관한 것이다.

운영기관 담당자 FGI 결과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완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고유한 특성 유지'에 관한 것이었다(3장 FGI 결과 참조). 이는 개별적인 특성화라기보다는 단순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고유성이나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체의 고유성은 개별 운영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과정 실행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성화 전략은 모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조직 차원에서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설정한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브랜드 중심의 통합적인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테마나 방법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독특한 것이라는 의미의 차별성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특성화, 차별성은 같은 것이라도 남다르게 뚜렷한 특징과 방향, 성과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주제라도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재구성하여 나름대로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운영과정과 성과에서 차별화된 특징과 장점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출처: 김혁진(20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 전략의 이해와 방향". 운영실무자 온라인 직무연수 자료(미간행) 에서 인용.

그림 II-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 전략 및 프로젝트 구성요소

특성화 전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생애에 의미있는 자기개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보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요구를 깊이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 셋째, 지역마다 자원, 여건, 특성, 환경 요인 반영을 통한 체감성과 현실성 반영이 필요하다. 넷째, 유사한 방과 후 사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장점 확보가 필요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 전략의 하나로 진행된 사업의 사례로 '진로체험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나 '창의융합형 콘텐츠 운영 모델 '개발 사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 2019년에 9개소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020년에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모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진로체험센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통과정이나 국가 요구 주제가 많아질수록 현장의 운영기관의 고유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례는 발굴되기 어려워진다. 이와 비교하면 창의융합형 운영모델은 디지털 기술이 내용에 일부 포함되었지만 특별한 별도 시수 반영용 의무과정은 아니었다. 프로그램 운영의 원리나 방법, 프로그램 운영체계로 활용방법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여건을 갖추었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운영기관에서 특성화 주제로 활용하여 시범운영 하였다.

2025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침에서 예시한 주말형 프로그램 주제는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서 시행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특성화 주제의 사례가 된다. 새로운 프로젝트 보다는 기존 주제를 반영하였는데 주말과 주중활동을 통합한 주제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기관 입장에서 중앙의 요구에 따른 필수적인 특성화 주제는 개별 운영기관의 기획형 특성화 전략과 비교하여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표 II-6. 주말형 프로그램 주제 예시 - 특성화 전략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주제 예시	운영방식	운영시수 편성(예시)
① 창의융합 프로젝트 활동	과학, 예술, 역사, 디지털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융합한 창작활동	공통 운영과정(1시수) +창의융합 프로젝트(4시수)
② 진로개발 지역 현장체험 활동	지역 자원을 이용한 현장실습체험으로 진로탐색 및 미래 진로설계	공통 운영과정(1시수) +진로개발 현장체험(4시수)
③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활동	봉사활동과 접목하여 지역혁신 아이디어 제안 또는 지역사회 개선 활동	공통 운영과정(1시수)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4시수)

* 출처: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13.

3) 연계체계 분야

(1) 타 돌봄사업의 변화로 명백하게 두드러진 차별화가 어려워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돌봄정책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사업(늘봄학교 등) 및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방과후학교는 특기 강좌, 방과후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의 돌봄기능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체계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센터별로 편차는 있지만 단순한 학습보조 포함 돌봄기능에서 벗어나 외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 후원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심사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기획중심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 중심인 점을 반영하여, 2016년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아동인구 감소와 대상자 확보,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중학생 이상으로 서비스 연령이 연장되는 추세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는 지역사회에서 연령대가 중복이 된다.

교육부의 경우에도 온종일돌봄교실, 늘봄학교 등 종합적인 방과 후 운영체제로 발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학교 내 자체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다수의 부처에서 전문적인 콘텐츠를 강사와 함께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늘봄학교 기반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은 학교 연계를 원하는 관련 부처나 기관 입장에서는 학교로 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서비스 연령대나 프로그램 운영에 경쟁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의 돌봄교육 시스템인 늘봄학교와 비교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자 모집이나 프로그램 자원 확보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든 돌봄사업마다 콘텐츠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현상이다. 다만, 세 분야의 방과 후 사업이 각자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두드러져야 정책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의 문제 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더 어려운 환경은 운영시설 수 등 사업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소수라는 점이다.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와 운영체계 구축과 함께 일정 수준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기관 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2)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인지도 개선 필요

서정아 외(2024년)의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 영역, 특기적성 및 참여활동, 심리적응, 핵심역량 등 전 영역에서 효과성 분석 결과 향상 수준은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매년 시행된 효과성 분석 조사연구에서도 대부분 같은 결과가 나타났지만, 효과성과 만족도의 편차는 이전 코로나 시기에 비해 증가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성과지만 그동안 이러한 성과가 어떻게 공유되었고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7.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분석 - 학업영역

항목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성적	3.21	0.93	3.31	0.94	-2.79**
공부시간	2.83	1.13	3.26	1.12	-10.60***
학교발표	3.19	1.03	3.22	1.02	-0.76

* p<.05, ** p<.01, *** p<.001

표 II-8.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분석 - 핵심역량

항목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판적 사고	3.49	0.91	3.69	0.91	-5.82***
문제해결능력	3.37	0.94	3.55	0.95	-5.40***
자기주도성	3.52	0.89	3.68	0.87	-4.74***
사회성	3.86	0.80	3.96	0.79	-3.28***
시민의식(공동체의식)	3.68	0.82	3.78	0.82	-3.35***
진로개발	3.78	0.77	3.90	0.75	-4.10***

* p<.05, ** p<.01, *** p<.001

* 출처: 서정아,장여옥,박도윤(2024).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p.34 및 40에서 인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은 참여 청소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집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집 체계와 성과가 우수한 운영기관의 경우 이미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성과 공유와 지역의 인지도, 협업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참여자 모집의 활성화 및 참여의 지속성이 사업 참여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인식과 경험 수준, 운영성과가 지역과 공유되는 수준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 기반으로 지역연계가 강조되고 있지만 참여자 모집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가 지역에 공유되면 연계 자원의 확대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뉴얼 및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 홍보나 지역연계를 강조하였으나, 개별 운영기관들이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공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결과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개별 운영기관의 성과공유를 넘어 광역단위-국가단위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거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거나 진단 평가한 사례도 확인이 어렵다.

지역 현장에서 참여자 모집이 어렵거나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하거나 지역 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의미있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달자 입장의 홍보나 성과 전달이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실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3) 지역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와의 연계나 지원-협업기반 부족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차원의 중앙센터와 시·도차원의 광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중앙-광역 단위 방과 후 활동 정책 전달체계를 법령으로 규정하였고 동 센터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염두에 두었는지 또는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전제로 규정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이 실제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시·도,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되 별도의 운영체계를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시간대와 공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기존 지역중심 청소년활동과 방과 후 활동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방과 후 지원사업에 의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는 시설 기반이 주로 청소년수련시

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매개로 하는 정책전달 및 협업체계 구상이 효과적이다. 2024년 사업결과 자료 기준으로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나 종사자 워크숍 등 센터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역 청소년활동 진흥을 지원하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하여 국가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해야 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목적과 기능 수행 관점에서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은 본래의 고유기능으로 봐야 한다.

2025년 성평등가족부의 운영지침 기준으로 보면 행정적인 전달과 관리체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중앙부처와의 연계와 지원 및 운영기관 지원기능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지자체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이 누락된 상태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일부 예외도 있지만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입장에서도 수련시설 연계가 필요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시·도연계를 위해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업이 필요하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5).2025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p.6

그림 II-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진 체계도

4) 지원체계 분야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기구의 위상과 조직구조의 한계

2025년 성평등가족부 운영지침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전담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활동진흥본부-정책사업부 내 업무로 편성, 4명이 전담운영)이다. 주요 업무는 운영전담인력 교육, 현장점검(합동) 및 컨설팅 지원,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홍보,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범부처 공동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운영조직 위상으로 보면 부서 내 업무로 분장되어 있고, 지원사업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된다. 전담직원은 정규직 외에 계약직으로 충원될 수 있어서 조직의 전문성과 직원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다. 위탁사업 운영 방식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입장에서는 중단도 가능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과 관련된 기본 기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반영하고 필요한 추가사업을 위탁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에 의한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서는 별도로 해당 기관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책전달 체계상 방과 후 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 기능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함을 전제로 동 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출처: "청소년기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

(2) 운영인력 소진에 대한 대책 및 직무 지속성 여건 부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관련 현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적정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다. 유사 돌봄사업 종사자들과 급여를 2024년 연구 사례로 비교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월 급여는 담임 기준으로 월 2,062천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2,236천원, 다함께돌봄센터 2,457천원, 늘봄학교 돌봄전담사 2,708천원으로 조사되었다(정경은, 2024, p.165). 업무부담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지원 대상 아동수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0명 이상 생활복지사 3명, 25명~30명 2명으로 조정되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운영기관의 타 부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계약직 운영체계 내에서 신분의 안정성이나 직무수행 수준에 따른 보상을 통한 근로안정성 및 직무역량의 전문성 제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되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추가비용의 부담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다. 국가 및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예산기준이 아닌 유사 사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나 제도적인 사업관리 체계상 이에 대한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직무만족도와 근로환경과 관련하여 운영기관 담당자 FGI 및 직무수행 과정을 통해 제기된 주요 현안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문제와 직무 적극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였다(3장 FGI 분석결과 참조). 2025년 운영기관 실무자 직무교육 과정에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가 편성된 것은 그만큼 종사자 소진 문제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면접조사 결과 중 동일 청소년을 매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감정과 경험도 소진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의미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인지도가 저하되면서 종사자들의 사기도 같이 저하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행정업무 및 종합평가 등에 대한 업무 부담감도 여전히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담임의 경우 청소년 생활지원에 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행정업무로 인해 청소년과 만남 시간도 부족해진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평가지표도 축소되었지만 단순한 업무 줄이기를 요구한다기 보다는 직무수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종사자 직무수행 체계도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5년 이후 기본업무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직무분석부터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직무수행에 따른 소진 예방 문제도 중요하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도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과 사업운영에 중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직무역량 교육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자체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문제는 요구되는 역량이나 개인별 전문성 향상 수준과 비교하여 필수 교육시수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종사자 교육수료 기준은 신규 종사자 6시간, 팀장 16시간, 담임 8시간, 주말형 종사자 4시간 이상이다. 자체 상근인력 교육과 보조인력 교육도 연 1회 이상으로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다양한 교육 경험을 위한 교육비 확보 문제도 있지만, 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운영체제와 230일 운영일수 기준에 따라 종사자들이 외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총교육시간 자체도 부족하지만, 종합적인 직무역량 기반의 체계적인 표준교육과정 없이 일부 기본교육 외에는 시의성을 반영한 주제중심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3) 지역별 여건에 따른 콘텐츠 자원과 운영역량 편차

운영기관 담당자들이 체감하는 지역환경 여건에 따른 편차는 개별 시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전환-활용에 따른 전문적이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기나 설비의 자체 확보를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변에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한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도 도심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 같이 기기나 전문가 자원이 필요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른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트랜드나 수요의 변화에 대해 개별 시설에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운영인력의 전문성이나 연계 역량으로 해결하는 것도 물리적 환경 조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 규모와 환경에 따른 차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차이,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필요한 설비와 장비를 보유한 운영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대학이나 전문기관 연계가 가능한 입지에 위치한 운영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간 편차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험을 하게 된다. 부족한 환경에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낸 운영기관도 격려를 받아야 하지만, 간혹 필수적인 지원없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일반화되고 우수사례가 되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모든 시설에서 좋은 설비와 기기를 갖출 수는 없고 모든 지역에 전문가를 배치할 수 없다는 한계를 전제로 지역편차를 줄이고 상대적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FGI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및 방법
2. 조사내용
3. 조사결과
4. 요약 및 결론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FGI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및 방법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지자체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수요 및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과의 중첩 현황,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지역 전달체계 내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수요에 대한 인식 현황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잠재수요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하고, 교육부의 돌봄사업과의 중첩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상대적 우위 요소 및 결핍 요소에 대한 현장의 의견, 실제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돌봄교실이 중복되는 경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신 돌봄교실이 선택되는 현상의 심각성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전달체계 내에서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및 활동 담당자들이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최근 3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을 우선으로 하였다. 운영 유형은 기본형, 농산어촌형, 다문화형, 장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과 교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시작일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본 조사의 참여자 세부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Ⅲ-1. 조사대상

그룹 구분	지역규모	지역	성별	직책	운영 유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력(년)
G1 (수도권)	광역·특별시	서울	남	팀장	기본형	3년
	중소도시	경기	여	팀장	기본형	10년
	중소도시	경기	여	팀장	기본형	10년
	중소도시	경기	여	팀장	장애형	17년
	광역·특별시	인천	여	팀장	기본형	1년
G2 (비수도권)	중소도시	충남	남	팀장	기본형	3년
	중소도시	경북	여	팀장	기본형	10개월
	광역·특별시	광주	여	팀장	기본형	3년
	광역·특별시	대구	남	팀장	기본형	18년
G3 (비수도권)	읍면지역	강원	여	팀장	농산어촌형	9년
	광역·특별시	울산	여	팀장	기본형	5년
	중소도시	충남	여	팀장	기본형(학교형)	8년
	읍면지역	충남	여	팀장	농산어촌형	5년
	중소도시	충남	여	팀장	농산어촌형	8년
	중소도시	경북	남	팀장	기본형	10년

2. 조사내용

본 조사의 내용은 크게 1) 근무 계기 및 중요성,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 3)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 조사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근무 계기 및 중요성	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하여 일하게 된 계기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역할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	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학부모 수요 현황 ② 최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 변화 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요도
3)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	①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강점의 효과성 ③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방안	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의 역할 및 개선사항

3. 조사결과

1) 근무 계기 및 중요성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무 계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전공’, ‘진로’, ‘경험’, ‘실습’, ‘수련’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무 계기가 본인의 전공 또는 진로와 관련이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근무 계기

① 근무 시기 및 계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사업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대체로 청소년 관련 전공을 살려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도자는 미술, 역사 등 자신의 전공 분야를 청소년 지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주요 근무 계기였다고 응답했다.

근무 시기 및 계기
“우선 청소년 교육복지학과를 전공했고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로 활동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애들을 제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게 방과후라고 생각을 해서 방과후활동을 담임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어서 방과 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저는 미술교육과를 나와서 학생들 지도하는 쪽에 일단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청소년 지도사라는 일을 알게 되어서 소개도 받아보고 해서 지원을 해서 활동팀에 있다가 청소년들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좀 오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저는 지금 청소년 지도사로 일한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원래는 제가 역사를 전공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문화의 집에서 대학생 멘토를 선발했거든요. 그때 청지사라는 직업이 되게 재밌겠구나 해서”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기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현장전문가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일부 지도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사업비 지원을 받는 구조인 만큼 운영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 운영이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기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경험시켜주고 싶었고”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입사를 할 때만 해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처음 시작한 때라 불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서 한 10년 뒤에 아무도 어쨌든 시작 안 하는 이 분야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고 10년 뒤에는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전에 일을 할 때는 한 달 한 달 수입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사업을 펼치는 거라서 기대감이”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③ 초기 기대 대비 현재 변화

근무 초기 기대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했거나 기대와 일치한다고 응답한 경우, 개인 성향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업무가 잘 맞았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업에 비해 다루는 분야가 폭넓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그만큼 일을 더 재미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제시되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과 방과 후 시간을 건전하고 즐겁게 보낼 것이라 기대했으나, 동일한 청소년들을 매일 대면하면서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정·행정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예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청소년들과의 소속감과 결속감이 약화되었다고 느낀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초기 기대감 대비 현재의 변화 : 긍정
"애들과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그 성과가 바로바로 눈에 오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성취감은 어느 누구의 청소년 지도사보다는 매우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기대했던 건 저는 학업을 떠나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경험하고 진로를 자기가 잘하는 특기 같은 걸 찾아서 진로를 좀 잘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청소년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로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 (G3/광역·특별시(울산)/여성/기본형/5년)

초기 기대감 대비 현재의 변화 : 부정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 생활을 건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상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여를 하게 되니 생각과 현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G2/중소도시(경북)/여성/기본형/10개월) "사업비가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사업을 펼치는 거라서 기대감이 그 부분에서 좀 좋았거든요. 부담감도 조금 나아질 것 같았고 여러 아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그런데 그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초기 기대감 대비 현재의 변화 : 부정
“연대 관계나 이런 것이, 그 기대감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해가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식이나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식들, 청소년 업계 종사자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그 인식이 떨어지니까 소속감이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결속력 이런 게 조금은” (G3/중소도시(충남)/여성/기본형/8년)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역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사회’, ‘체험’, ‘생활’, ‘경험’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속에서 사회성 향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가치/역할

①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특별한 성장 기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역할로는 사회성 발달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주도적 성장 기회가 핵심으로 꼽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의 중요성을 배우고, 지식 중심의 성장보다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장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성장 기회 측면에서는 학습 중심이 아닌 체험 활동·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주요한 차별점으로 제시되었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실패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돌봄 및 안전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가장 기본이자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농산어촌형 기관이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급식 제공, 등·하원 지원 등 돌봄 기능이 전체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회성 발달 측면

"학생들한테 주는 가장 큰 성과는 사회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성과 관계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애들이 봤을 때 타협하고 협동하고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떤 단체 생활을 통해서 6개월, 1년 뒤에 그 변화된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또래들과 이런 사회성을 기르는 역할에 대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기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는 다양한 경험 축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뒤에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결과가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는 경험을 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그냥 이 공간이 진짜 편안하고 그리고 뭘 해도 다 괜찮은, 그런 공간으로 느끼게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발언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2/중소도시(경북)/여성/기본형/10개월)

돌봄/안전/보호
“저희 지역에서 보자면 아이들 돌봄이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형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들판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을 다 합쳐서 8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부모들이 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PC방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집에 많이 오는 편이고 또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등교도 해주고 밥도 주고”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게 맞벌이 학생들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는 곳은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아이들이 PC방을 간다거나 이런 공간보다는. 그래서 보호나 돌봄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그런 역할이 좀 더 앞으로 더 강조될 것 같다”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을 위해 특히 강조하는 부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스스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사회성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서적 지원과 사회성 발달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핵심 가치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사회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또래 관계 형성을 돕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돌봄, 체험 활동, 학습 지원 중 어떤 기능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이가 나타났다. 도심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 체험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비도심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돌봄 기능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서적 안정 기반의 창의적 활동 공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건 부모님들의 기대도 무시를 못하고 또 아이들의 그런 학습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2/중소도시(경북)/여성/기본형/10개월)

사회성 함양을 위한 지원
"저는 아이들이 또래들을 만나고 협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회성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사회성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조금 결여된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상담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돌봄과 생활 지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조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③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이 전달되었다고 체감한 사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이후 청소년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자신감이 향상되고, 학교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거나 결정하게 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위험 경계에 있던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장한 청소년들이 다시 기관으로 돌아와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후배 청소년들을 돕는 등 긍정적 모범을 보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자기표현 및 자신감 상승
"저희 방과후에 연초에 들어와서 되게 말도 없고 자기표현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닌 지가 한 7, 8개월 정도 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혼자 만화 그리기 이런 부분만 하고 다른 친구들을 체험할 때는 같이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있고 그런 소심한 아이였는데 대학생 멘토라든가 저희 실무자들이 붙어서 계속 말도 걸어주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자주 보다 보니까 조금씩 말도 트이고 다른 경험도 본인이 이제는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도 그려서 미술대회 같은 데도 출품하고 댄스 동아리라는 것에도 직접 도전을 해보겠다고 할 정도로"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설정
"작년에 연극을 한 6개월-7개월 과정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연극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연극 무대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설정
올라서 연극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연극을 처음 접해보고 연극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시작했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면서 작년에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극에 뛰어들고 싶다고 연극 관련된 중학교를 전문적으로 입학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돌봄과 생활 지원
“이 친구의 가정 상황은 장애를 가진 오빠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할머니가 임대 받으셨던 집에서 같이 살고 방이 두 칸인데 이 친구가 삼촌과 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고... 위기 청소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드림스타트와 복지관과 계속 연계해서 저희 상담 복지센터에서 긴급복지 지원해 주는 부분과 그리고 복지관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올라가서 친구들도 좀 사귀었고”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다시 돌아와서 도움을 주는 사례
“졸업 후에 많이 찾아와서 한국장학재단 나눔지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성장해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후배들한테 돌봄을 주는” (G1/ 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학부모 수요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수요 현황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학습’, ‘체험’, ‘수업’, ‘진로’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가 체험활동과 학습·수업 지원, 진로 탐색 및 진로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는 요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학부모 수요 현황

① 청소년/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는 청소년과 학부모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학습 부담이 적은 활동으로, 만들기·조립·창작 활동, 체육 활동, e스포츠 등 자유 시간이 많고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 성적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학습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동시에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 청소년 대상 기관의 경우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구체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 학업 외 활동
"일단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뭔가 만들고 조립하고 창작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G1/광역·특별시(서울)/남성/기본형/3년) "청소년들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유 시간이 많은 것 그런 활동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 : 학습, 진로탐색, 직업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보호자분들은 공부를 해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또 무료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부해서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보호자 분들 반 정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애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호자분들에서도 반절 정도로 해서"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저희는 장애이다 보니까 약간 부모님의 의견이나 아이들의 의견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일단 다른 것들은 아까 비장애인과 똑같이 활동하는 것 만들기 그리기 아니면 야외 체험 이런 걸 보통 대부분 다 좋아하고 그중에 하나는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리스타나 제과 제빵 같은 프로그램을 제일 원하셨고,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어머니들이 원했던 것 중 하나는 성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잘 대응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예산과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청소년이 원하는 흥미 위주의 활동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실무자나 담임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인되었다.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활동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교육 단체 등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장애 청소년 대상

기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리스타·제과제빵 등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장기 운영하여 자격증 취득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등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습 성과 향상 측면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예산의 한계, 다양한 학력 수준을 가진 청소년을 분반하여 수업하기 위한 교실·시설 부족 등 구조적 제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e스포츠, 체육 활동 등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컴퓨터 사양, 체육 시설 부재 등 기관의 물리적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도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제기되었다.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예산으로 채우지 못하는 걸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지역사회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지역의 다양한 부분의 봉사활동 단체나 아니면 환경 교육 단체나 이런 부분은 다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G2/중소도시(경북)/여성/기본형/10개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진로를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침 관장님의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 유스센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로 프로그램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수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이 잘 안 돼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길게 보고서 자격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친구들이 다 자격증 하나씩은 다 딸 수 있게끔 만들어서"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사실 저희는 도시 쪽에 있다 보니까 학업보다는 아이들이 여기서는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걸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보호자들한테도 학업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셔라라고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G3/광역·특별시(울산)/여성/기본형/5년)

학습 지원이 어려운 이유

"저는 이게 대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정원이 일단 중등 1, 2학년만 받고 있는데 1학년 아이들 사이에서도 학습을 좀 보충해 주려면 어느 정도 강사님께서도 그 격차가 덜하

학습 지원이 어려운 이유
거나 학원처럼 그 등급에 맞는 친구들이 분반으로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을 거쳐 왔지만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영어 강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느 수준으로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나눠서 한다 치면 성적은 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강사비나 그리고 시설에 수업을 분반해서 할 수 있는 교실이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여건과 환경의 제약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
"청소년들이 체육을 요구하고 e스포츠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 솔직히 저희 기관에 있는 컴퓨터들은 그런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 줄 수도 없고 아이들이 체육을 매일 하고 싶은데 저희는 문화의 집이다 보니까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원의 충분 정도

정원 수의 적정성에 대해 현재 운영 정원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현행 정원(40명, 또는 한 반 20명)은 실제 운영 환경과 서비스 질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담임 교사가 청소년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시에 각종 서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는 인원 규모라는 것이다. 한 반의 정원 수를 줄여야 청소년을 보다 세밀하게 돌볼 수 있고, 전반적인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습 지도 측면에서도, 다양한 학업 수준을 가진 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해 지도하기에 현재 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한 반에 약 10명이 참여하고 있어 특수교육법상 적정 인원(약 7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외부 활동 시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편,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수요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는데,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한 반 20명을 한 명의 담임 교사가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학생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 수를 늘리고, 반별 정원은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모집 측면에서도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청소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에 학교 돌봄센터 등 공적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정원을 안정적으로 채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학원 일정으로 인해 매일 출석을 전제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희망하는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약 5명 정도를 감축해 한 반 15명 내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정원을 단순 감축할 경우 사업비 감액이 수반되어 기관들의 반대가 클 수 있으므로, 정원 조정은 '모집의 어려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의 도심권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이에 따라 정원을 단계적·차등적으로 배정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도심권에서 멀수록 청소년 모집이 어렵고 차량 운영비(등하원 버스 등) 부담이 커지는 만큼, 거리 비례 차량 지원비 추가 등 보다 세밀한 차등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정원의 하향 조정 필요성 : 관리의 어려움

"20명을 케어하기가 강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수준 차이가 학력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장애 같은 경우도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한 반에 7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초등 중등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반에 10명이 다니고 있어서 원래 특수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한 반당 세 명의 친구들이 오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외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아무리 수급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방과후학교 운영 정원의 하향 조정 필요성 : 모집의 어려움

"방과후 이후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사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에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한 반당 20명씩 해서 2개 반이면 40명, 3개 반이면 60명 이렇게 하는 게 좀 버거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아무리 수도권이고 그래도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G1/광역·특별시(서울)/남성/기본형/3년)
"사교육을 보호자님들이 정말 놓을 수가 없으세요. 학원 일정이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모집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학교도 사실은 청소년들이 줄면서 학급 인원 자체도 줄었거든요. 30반 되는 학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공교육의 세계에서도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해야 되는 그 기관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감소성을 보여서 그 반영을 타서 교육계가

방과후학교 운영 정원의 하향 조정 필요성 : 모집의 어려움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40명을 고집한다는 게 시대 반영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G3/중소도시(충남)/여성/기본형/8년)

적정한 운영 정원 : 한 반당 15명 수준

"저희는 중등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1학년 2학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한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면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G2/중소도시(경북)/여성/기본형/10개월)
"지금 상황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0명이지만 한 30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한 반 정원이 15명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제가 사교육을 하던 입장에서 여기에 왔을 때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내 파장력,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학력에 대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학력으로 따지다 보면 20명은 학교 안에서도 어렵지만 여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방과후학교 운영 정원 조정시 고려할 사항

"얼마 곱하기 40명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보면 인원이 줄면 그에 대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모든 기관에서도 다 반대를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심권에서의 거리,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기준이나 규정을 차등적으로 배정한다거나 거리 비례에 따른 차량 지원비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등하원 버스를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편도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은 거리의 비율에 따른 차등적인 그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저희 같은 경우에 한두 반 정도 더 늘려도 된다고 하지만 다른 군이나 시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에 지금 다 세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관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얼마를 늘려야 된다 그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한 반의 기준 정도는 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2) 최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 변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수요 현황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예산', '체험'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가 체험활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최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 변화

① 수요 및 이용의 변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수요는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돌봄 중심에서 전문 교육 및 심층 활동 중심으로 기대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과거에는 식사 제공과 안전한 보호 등 기본적인 돌봄만으로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이에 더해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의 수준·다양성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는 창의 교육, 외부 체험 활동, 전문 특강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의

경우 부모가 학습을 직접 지도하기 어려워 수학·영어 등 교과 학습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응답이 있었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우선순위 기준이 완화되면서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학부모와 청소년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 전반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수요 및 이용의 변화 : 돌봄 중심에서 학습/활동 등으로 변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진짜 가장 기본적인 돌봄 위주의 식사 급식 제공하고 아이들 보호하고 이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해가 거듭해 가면서 부모님들이 그것보다는 전문 교육일수록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좀 강화해서 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있어요."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아무래도 제가 입사했을 때가 17년 초였으니까 그때는 돌봄을 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면 한 4, 5년 전부터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머니들도 아이들도 원하는 게 높아졌어요." (G3/읍면지역(강원)/여성/농산어촌형/9년) "저희 지역은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교과를 되게 또 원하시는 거지요." (G1/광역·특별시(인천)/여성/기본형/1년)

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들은 지역사회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과 제도적 보완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또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의 강사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는 시대적 흐름과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고려하여 AI 교육 및 디지털 플랫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지도자들은 AI 활용 능력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 확보, 전문 강사 풀 지원, 그리고 외화 결제가 필요한 AI 플랫폼 사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 예산 증액

"학과든 체험 활동이든 해 주시는 외부 강사님들 강사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옛날보다는 5천원, 만원 이렇게 늘리는 꼴인데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를 해줘야 아이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G1/광역·특별시(서울)/남성/기본형/3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 프로그램 측면에서 AI교육 도입

"전임자가 동화책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예산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AI로 스토리 짜는 방법이라든가 글 써서 피드백 받는 방법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을 AI로 보정을 해서 좀 더 그럴듯하게 바꾼다든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이건 예산 안 쓰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결제하는 챗GPT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요즘 AI 교육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좀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강사 풀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AI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거든요."
(G1/광역·특별시(서울)/남성/기본형/3년)
"저희는 창의 융합 메이커 미디어 특성화 활동을 하고 있는 방과 후예요. AI 플랫폼을 내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AI 플랫폼을 쓰려면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우리는 그러면 얼마 정도 수반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걸 외국에서 외화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 그러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AI 플랫폼을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요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요도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상담', '안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담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요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가운데, 현장 지도자들은 정서적 안정과 심리 상담, 그리고 기본적인 돌봄 및 생활 지원을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서비스로 꼽았다. 정서 안정과 심리 상담의 중요성은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갈등 해결 능력 부족,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응답되었다. 돌봄과 생활 지원 역시 단순한 기본 제공을 넘어,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여 '기본에 충실해야 할 영역'으로 거듭 강조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자와의 꾸준한 소통과 간담회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도자들은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보호자의 재능과 특기를 활용한 교육 봉사·재능 기부를 연계하는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요도 : 돌봄, 안전, 상담 등

"그냥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돌봄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맛있는 영양 있는 밥을 저단가로 인해서 어쨌든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부분과 등원도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저는 상담. 일단 제가 학습이니 체험이니 이런 것보다 상담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4, 5, 6학년 애들이 학교 입학할 무렵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걸 겪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 반으로 너희는 예의 범절을 줌으로 배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학교 생활했던 아이들보다 좀 떨어지고 속되게 말하면 급발진하는 애들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붙잡고 상담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G1/광역·특별시(서울)/남성/기본형/3년)
"안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좀 더 익힐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게 상담을 통해서 보통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건데 장애 친구들 아니어도 비장애 친구들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보호자분들과의 꾸준한 소통, 간담회를 주로 많이 하지요. 이런 기회가 아무래도 좀 더 강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분들과 협의를 하다 보면 꼭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분들 중에서도 재량이나 그런 특기가 많으신 보호자분들도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해주시거나 재능 기부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보호자분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연계한 축제에 가서 페스티벌을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3)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

(1)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다른 돌봄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강사', '관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단순 돌봄과는 달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과 담임과 청소년과의 관계가 더 깊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① 다른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고유 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다른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핵심적인 차별점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깊은 관계 형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들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전문 강사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연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가장 큰 차이로 꼽았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학교보다는 규율이 약하고, 지역아동센터(가정형)보다는 규율이 강한 '중간자적 위치'에서 청소년의 사회성을 함양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전자출결 도입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타 서비스와 구별되는 강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대상 연령층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일부 지도자는 프로그램 내용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늘봄학교 등 다른 돌봄 서비스와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모호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담임과의 관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지만 담임 선생님과 청소년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더 깊지 않나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돌봄과 교육의 중간 위치 / 체계적
"규율이라는 게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학교보다는 약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중간인 것 같아요."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학년에 맞는 특성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었고 출결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고 저희는 어쨌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그 계층에 맞는 수요나 이런 걸 조금은 더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G3/읍면지역(강원)/여성/농산어촌형/9년)

다른 프로그램과 특별한 차이 없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어쨌든 다른 지역아동센터, 늘봄 학교 이런 부분들하고의 또 다른 역할은 분명히 체험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거기에 예전부터 차별성을 두고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지?"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② 다른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선호 이유

돌봄교실이나 사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선호하는 학부모와 청소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호는 주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전문성과 충분한 돌봄 시간 제공, 그리고 안전 확보 및 신뢰 관계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할 경우 아이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활동을 깊이 있게 체득하고 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역아동센터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별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간 커리큘럼에 따라 청소년이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돌봄과 안전이 학부모 선호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차량 운행과 석식 지원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일종의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보내시면 전문적으로 어떤 한 가지는 체득해서 아이들이 자기 걸 만들어서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이 1년 동안의 자기 자신을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커리큘럼에 의해서 1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것에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돌봄(급식, 차량 지원 등)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거의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 외에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곳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석식이라든지 급식 지원 이런 부분도 되게 크게 선호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저는 차량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에 아이들을 태우러 가고 그다음에 학습이 다 끝난 후에는 집 밖까지 태워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고" (G2/중소도시(경북)/여성/기본형/10개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끝나고 나서 거기 가서 있으면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않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식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점의 효과성

앞서 제시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여러 강점은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의 깊은 유대감 형성, 또래 친구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발달, 규칙적인 생활 관리 등이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로 언급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강점의 효과성
"저희들도 아이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여기 와서 친구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여기서 유대감을 많이 형성하거든요. 저희들은 핸드폰을 다 수거를 하거든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시간 외에는 핸드폰을 처음에 들어올 때 등교할 때 내고 갈 때까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나마 우리 아카데미에 와 있을 때는 핸드폰도 좀 덜 사용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친구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그게 좀 강점이지 않을까?" (G3/중소도시(경북)/남성/기본형/10년)

(3)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

다른 돌봄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체험', '주말'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주말 활동에 대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

① 다른 프로그램 대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다른 돌봄 프로그램에 비해 전문성이 높고 운영이 체계적이라는 점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 5일 등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학원 스케줄 등 사교육 일정이 많은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일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주말 체험 활동을 최대 4일까지만 규정하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무 등원 횟수에 대한 부담
"저희는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봄센터를 보면 일시 돌봄 그냥 장기 돌봄 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 5일을 와도 되고, 이런 등원에 대한 게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이기는 한데 저희는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과 후를 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등원을 저희가 주 5일이 사실은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 등원 횟수에 대한 게 약간 제약처럼 있다 보니"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주말 활용의 제약
"저희가 230일 운영 일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4일만 주말 체험이 횟수가 인정이 돼서 평일에는 226일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은 돼서 다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주말 같은 때에 아이들이 원하는 미술 대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청소년 활동팀 수련 활동팀이라고 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지요. 주말을 4일까지만 인정을 해 주시다 보니까"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② 방과후 아카데미가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점

다른 프로그램과의 명확한 차별화를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변경된 운영 지침에 대해 단순 돌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명확한 기능·대상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돌봄 단순화 우려
“올해 운영 지침이 바뀌면서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사라지고 진짜 단순 돌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G2/광역·특별시(광주)/여성/기본형/3년)

사업 영역의 명확한 분리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연령대별로 어디는 지역아동센터가 맞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지역아동센터 중등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고등은 뭐 이렇게 좀 차별화가 돼야지 프로그램은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쫙 풀어놓고서 경쟁해 봐! 이것도 아니고 무슨 행정이 이렇게 가나 싶은 거예요.” (G1/광역·특별시(인천)/여성/기본형/1년)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방안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예산’, ‘업무’, ‘일수’, ‘지침’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예산 확보와 업무 부담 지침의 명확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①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들은 사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지도자 처우 개선과 운영 일수 조정을 꼽았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많아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력이나 직급에 따른 급여차이가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국가 제도 안에서 자격·경력·보상 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연 230일로 설정된 현 운영 일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23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프로그램 운영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고, 그 결과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게 되어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주말 체험 활동 횟수가 4일까지만 운영 일수로 인정되는 규정이 프로그램 확대에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내부 행사와 주말 체험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활동 일수가 4일을 초과함에도, 초과분이 운영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급여 체계의 불합리성
“실무자 처우 부분인데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팀장과 담임의 급여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게 일단은 실무자가 이직이나 퇴사율이 높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고용 안정 보장
“저희 광역시 내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정규직 전환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어쨌든 1년차 팀장님이나 실무자들 똑같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G3/광역·특별시(울산)/여성/기본형/5년) “이 직업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선생님들이 바뀌고 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메리트도 떨어지고 부모님들이 보는 인식도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더라.부모님들이 말이 나오시더라고요.” (G3/중소도시(경북)/남성/기본형/10년)

운영 일수 조정
"운영 일수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230일인데 1년에 230일이면 10일 안쪽으로는 다 준비한다 치고 나머지는 모든 아이들과 다 만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런데 솔직히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23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는 내년 걸 준비하기도 바쁘고요. 올해 것 마무리하기에도 실무자들은 바빠요.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토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요 체험으로 해서 인정해 주는 건 4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재단 안에서도 그렇고 행사가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 걸로 따져서 1년으로 따지면 52주나 아니면 53주 정도가 토요일로 배정이 되어 있는 365일 중에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날 행사하는 게 거의 20일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230일 중에 250일을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건 4일밖에 안 되는 거지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기본형/8년)

② 효과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청소년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지도자 처우 개선과 운영 일수 조정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지원) 최근 디지털 체험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디지털 체험 활동을 수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모델과 지원 체계를 중앙에서 설계·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인프라 연계 및 네트워크 제공) 농산어촌형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 특히 대학 연계 지원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체 연계나 특정 연계 사업을 추진할 때,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지원단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운영 지원단이 활용 가능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정리하여 현장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요구
“현장에서의 아이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려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인데 단순 돌봄이 아니라 정말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의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흐름에 맞게 AI 쪽 산업이 계속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분들은 이런 창의적 메이커를 하라고 던져줬을 때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사를 단순히 지원해 준다. 장비 지원해 준다. 단순히 돈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AI 플랫폼이나 AI를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흐름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중앙부처나 활동진흥원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한테 역으로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제공
“요즘에 지금 제7차 정책으로 해서 디지털 체험활동이 중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역마다 디지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4차 산업으로 갈 거니까 디지털 체험활동 무조건 해, 얼마만큼 해, 라고 하는 게 사실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은 사실 디지털 체험활동 아이들 AR 체험부터 해서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곳들도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서울권이나 경기권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찾는다든지 공평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3/광역·특별시(울산)/여성/기본형/5년)

③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체계의 효율성 확보,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행정 절차 개선) 활동진흥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 주무관의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행정 절차가 중앙부처-도-시-재단-센터를 단계적으로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문 한 건을 수령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강화) 학교와의 협력은 청소년 모집 및 돌봄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개별 기관이 학교에 직접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가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지원단 차원에서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선제적으로 하달하는 등 학교-기관 간 사업 협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행정 절차 개선
"지자체는 짧으면 몇 개월 1년 그 안에 주무관님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설명해야 되고 그 자체 점검이라는 것도 오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오실 때마다 다른 분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매번 똑같은 걸 다시 준비해서 또 얘기하고 또 설명을 해야 해요. 또 지금은 성평등가족부 거기서 문서가 '도'로 갑니다. '도'에서 다시 '시'로 갑니다. '시'에서 다시 재단으로 옵니다. 재단에서 다시 센터로 내려와요. 그러면 뭘 하나 공문을 받으려면 최소 5일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행정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강화
"학교와의 협력은 사실 청소년 수련 시설과는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현재는 기관에서 알아서 학교에 연락을 드리면 찾아뵙고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이렇게 방과 후 학생 모집 협조나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어찌 되었든 학교와 시설이 연계를 하면 서로 오갈 수 있는 지원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거기에 좀 합류를 해서 새로운 청소년들의 인재 발굴이나 모집, 그리고 돌봄 필요성에 대해서 운영지원단에서 먼저 시에 이런 기회를 던져주시고 협조 공문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다리를 놔주시는 과정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④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안정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과제 외에도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운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실성 있는 예산 및 운영 기준 적용)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 현실화가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다. 첫째, 현강사비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우수 강사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질적 하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둘째, 차량 운영비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도심

권에서 멀리 떨어진 기관일수록 청소년 등·하원을 위한 버스 임차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준은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심과의 거리 비례에 따른 차량 운영비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인원 체계 조정) 현재 탄력형의 경우 팀장 1명이 한 반을 전담하는 운영 방식은 행정, 사무, 상담 등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정당한 휴가 사용조차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최소 2인 체제(팀장 1명, 담임 1명)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평가 체계 개선) 현행 평가 체계는 기관 간 '줄 세우기'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서류 작업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시설 평가와 유사하게 점수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 여부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의 평가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실성 있는 예산 및 운영 기준 적용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강사비가 4만원으로 기본 1시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사실 4만원으로는 강사의 질적 하향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5만원 정도는 돼야지 요새 물가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수준을 위해서 그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예산의 증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덧붙여서 저희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도심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기관들은 버스 임차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운영비에 있어서 버스를 매일매일 등하원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버스비가 하루에 거의 2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한 달에 그러면 4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천문학적으로 많이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심권에서의 거리, 그런 거리 비례에 따른 차등 지원의 차량 운영비의 차등 지원이 저는 그런 기준이 세워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정규직 전환까지는 정책이나 정부 지침에 따른 정책이라 그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희들의 임금 테이블이라도 성평등 가족부에서 좀 수반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3/중소도시(충남)/여성/기본형/8년)

인원 체계 조정
“저는 일반 40명 기본형 말고 탄력 운영형에 대해서 한번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탄력 운영형 같은 경우는 평일에 똑같이 운영이 되지만 팀장 한 명이 다 해야 되는 체제이거든요. 담임이 없습니다. 팀장 1명이 15명 체제로 초등형으로 가는 체제인데 주로 기관의 건물 규모가 작은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230일을 운영해야 되고 모집도 똑같이 해야 되고 행정이나 사무뿐만 아니라 상담,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큰 사업을 팀장 혼자서 다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2인 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명으로 올리고 팀장은 한 명, 담임 한 명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은 게 맞지 않나”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평가 체계 개선
“평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하는 업무들은 다 동일해요. 다 똑같이 면담하고 이걸 가지고 아까 줄 세우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수련 시설 활동처럼 점수 구역대로 해서,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하셔야지 여기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저기는 어떻게 더 했는지, 같은 점수여도 행정 업무 행정 참여도 이런 점수들도 다 가산점도 그렇고 그런 걸로 나누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저희한테 평가를 나오셔서 여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생활 지원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미약해! 보완해!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걸 잘해서 95점이야! 이게 아니라” (G3/중소도시(충남)/여성/기본형/8년)

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도 운영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와 운영 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매일 많은 청소년을 만나는 업무 특성상 지도자에게는 충분한 ‘쉼(힐링)’이 보장되어야 하며, 직무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1년 내내 쉼 없이 운영이 지속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고, 재충전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쉼 보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상담, 활동, 행정 등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0~60명에 이르는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정서적·심리적 소진이 크고, 쉼 없이 1년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과업이나 교육을 요구하기보다, 힐링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오히려 전문성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 교육을 신청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재 직무역량비가 주로 팀장 직무 연수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 활용 범위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자격증 취득 등 기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소한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쉼 보장
"매일매일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오면 선생님이 사실 그만큼 기가 많이 빨리거든요. 선생님들도 뭘 배워서 뭘 더 해라 어떤 강화를 해라 이게 아니라 조금 숨통이 트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 활동진흥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도사 소진 예방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진정한 쉼은 아니고 힐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뭘 더 해라. 해라. 해라보다는 조금 더 쉴 수 있는 여건이나 혹은 우리 스스로가 워라벨이나 쉼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교육비 지원
"지금 직무 역량비가 저희 사업비 중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년 팀장이나 담임 직무 연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역량비로 지출을 해도 되냐라고 운영 지원단에 문의를 하면 수료증이나 내역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자격증 취득 그렇게는 지원이 어렵다. 개별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팀장 직무 연수 위주로만 되는 게 현실이고 그 외에 보수 교육이라든지 다른 컨소시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야지 그게 실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G2/중소도시(충남)/남성/기본형/3년)

(2) 성평등가족부의 역할 및 개선사항

성평등가족부의 역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결과, '홍보', '지침', '교육부'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홍보와 명확한 지침, 교육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Ⅲ-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역할 및 개선사항

① 성평등가족부의 지원 또는 소통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성평등가족부의 지원 또는 소통에 대한 개선점으로 명확한 지침과 지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침의 현실화 및 명확성) 성평등가족부의 운영 지침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뒤늦게 하달되는 경우가 많아, 연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자체와 협의하라"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집행 기준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므로, 현실을 고려한 지원 기준과 금액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현장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추가 지침은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소통 창구 마련 및 실시간 응답) 수시로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거나 온라인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시간이 주로 오후에서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단의 근무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긴급한 문의가 발생하더라도 제때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지침의 현실화 및 명확성

"저희가 활동진흥원에 연락을 하면 시와 소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에 연락을 하면 이건 지침대로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지침에서 벗어나는 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느 쪽에 가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도 약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평등 가족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실 때 권고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로 딱 픽스를 해서 내려주셔야 시에서도 그걸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해 주시지, 급여라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할 수도 있고 재단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재단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차별과 어쨌든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 때 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시에서는 지침을 따라라. 지침을 위해서 활동진흥원에 연락하면 시와 소통하면 된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기본형/10년)
"지침서에 지침을 내려줄 때 정확하고 확실한 문구를 써서 정확하게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도 가능한 이중적인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은 사용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소통 창구 마련 및 실시간 응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시간은 오후인데 6시에 퇴근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가끔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근무 시간을 바꾸시는 것까지는 아니라면은 저희와 고객센터처럼 온라인 응답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궁금증을 의뢰할 수 있을 때 그런 센터가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G3/중소도시(충남)/여성/기본형/8년)
"가면 갈수록 부처와의 소통은 창구가 단절된 건 사실이고요. 하물며 결과 보고에 가거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도 그 소통의 창구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없다는 게 사실인 건 맞아요. 그 소통 창구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G2/광역·특별시(대구)/남성/기본형/18년)

②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가 타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대국민·대부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위상과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평등가족부가 교육부와의 협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공식적인 돌봄·교육 자원으로 인식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홍보 내용이 교육부 및 학교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될 경우, 청소년 모집이 보다 수월해지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위상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 차원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적극 홍보하고, 공적 돌봄·교육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대국민 및 대부처 홍보 강화
"교육부도 돌봄이 중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저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보호자분들이 많은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 가족부가 그 부에서 하는 업무적인 것들에 대한 홍보들을 전문적으로 나눠서라도 전국 단위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 실무자로서 어디에서 홍보를 하든, 모집을 하든 그런 활동을 할 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3/중소도시(충남)/여성/농산어촌형/8년) "성평등 가족부에서 부처 간의 협력과 공조에 대한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알리는 것에 대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알려지는 게 그게 될 것 같거든요. 교육부에 그걸 알려서 각 교육청에서만 알고 있어도 저희 기관에서 아이들이 수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전혀 몰라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관의 지자체나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부처로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3/읍면지역(충남)/여성/농산어촌형/5년) "교육부와 의견을 좀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오는 건데 학교에서 늘봄이나 방과 후나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인원들을 그쪽에 뺏기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올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아니면 최소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홍보라도 학교 측으로 해서 교육부로 해서 잘 좀 내려간다고 하면 모집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레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G1/중소도시(경기)/여성/장애형/17년)

4. 요약 및 결론

1) 근무 계기 및 중요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자들은 청소년 관련 전공과 진로를 살려 청소년을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하는 동기로 본 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미술, 역사 등 자신의 전공을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활용하고자 지원했다. 대부분 초기에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예상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운영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청소년 대상 업무가 개인 성향과 잘 맞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폭넓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감과 만족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매일 청소년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소진을 겪거나, 실제 운영에서 재정·행정적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사회성 발달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주도적 성장 기회, 실패를 허용하는 경험의 장으로 인식되며, 돌봄과 안전 기능은 특히 비수도권·농산어촌·이주배경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서 핵심 가치로 평가되었다.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도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었다.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

청소년과 학부모의 수요는 학습, 체험, 진로 관련 요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청소년은 학습 부담이 적고 흥미 위주의 활동(만들기·체육·e스포츠 등)과 자유 시간이 많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반면, 학부모는 성적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함께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장애 청소년 대상 기관에서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성교육 등 구체적 직업·생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과거 단순 돌봄에서 최근에는 창의 교육, 외부 체험, 전문 특강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기관들은 예산·시간 제약 속에서도 흥미 위주 활동과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 수준별 분반을 위한 교실 부족, e스포츠·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미비 등으로 학습 성과 향상과 선호 활동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아카데미 지도자들은 정서적 안정, 심리 상담, 기본 돌봄 및 생활 지원을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성 저하와 갈등 해결 능력 부족 문제로 상담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40명, 혹은 반당 20명)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업무 부담과 개별 지도의 한계를 초래해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적정 정원은 반당 15명 내외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공적 돌봄 기관 증가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3)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연간 단위의 체계적인 교육, 전문 강사 활용, 지도자와 청소년 간 깊은 관계 형성 등에서 다른 돌봄·교육 서비스와 차별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학교보다 규율이 완화되어 있으나 가정형 돌봄에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보다 규율이 있는 중간 위치로, 사회성 함양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대상 연령(초4~중3)이 명확해 해당 연령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한 점도 강점으로 제시되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활동을 깊이 익히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차량 운행과 석식 제공 등 돌봄·안전 기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청소년과의 유대감 형성, 또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 규칙적인 생활 관리와 대면 상호작용 촉진 등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한편, 타 서비스 대비 부족한 점으로는 주 5일 등원 원칙으로 인해 학원 등 사교육 일정과 병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일부 가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주말 활동이 운영 일수로 인정되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주말을 활용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초등 저학년 포함 등 운영 지침 변화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단순 돌봄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등 유사 사업과의 기능·대상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사업 정체성 재정립과 명확한 역할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방안

지도자 처우 개선과 운영 일수 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계약직 비율이 높고 경력·직급에 따른 보상 차이가 거의 없어 이직이 잦다는 점에서, 지도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자격·경력·보상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 일수(연 230일)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 준비 외 행정·관리 업무 수행 여유가 부족해 프로그램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 측면에서는 강사비를 현실화하여(현 4만 원 → 5만 원 수준)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도심 접근성과 거리에 따라 차량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탄력 운영형 기관에서 팀장 1인이 행정·상담·프로그램을 모두 담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 2인 체제 구축을 통해 인력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AI 교육 및 디지털 플랫폼 도입, 농산어촌형 지역의 대학·기업 연계 등 프로그램·인프라 지원도 과제로 제시되었다.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기관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성평등가족부가 교육부·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지원단을 통해 학교에 협조 공문을 선제적으로 발송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앙·지자체·재단·센터로 이어지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잦은 주무관 교체로 인한 사업 이해도 부족,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 방식 등은 개선이 요구되었다.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현장 의견이 반영된 명확한 지침 제시, 운영 시간대에 맞는 실시간 소통 창구 마련, 그리고 2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임에도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대부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공적 돌봄·교육 인프라로 위치시키고, 교육부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학교 현장까지 사업의 위상과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4장 정책 제언

1. 전략체계 분야
2. 운영체계 분야
3. 연계체계 분야
4. 지원체계 분야

4 정책 제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방안은 현황조사, 기존 연구 분석, 현안 분석 및 운영기관 담당자 대상의 FGI 분석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주요 현안 분석을 위해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12개의 현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각 현안에 따른 중점 정책이나 사업추진 방안을 대안으로 발굴하였다(표 Ⅳ-1 참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FGI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와 대부분 유사한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아 외, 2024; 정경은 외, 202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황진구 외, 2023). 특히 정경은 외(202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편방안으로 1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현안에 따른 대안 도출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Ⅳ-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요 현안 및 정책 제언

분석 영역	주요 현안	정책 제언
1. 전략체계	(1)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으로서의 성격 약화-정체성과 타당성 측면	(1) 청소년 "성장" 지원 핵심사업으로 개념, 사업명 및 운영모델 재구조화
	(2) 법과 제도에 따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관리 부재	(2) "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 기반 국가 정책사업으로 위상 강화
	(3) 사업비 재원 변경에 따른 지역수요 확보와 지속성 확대 문제	(3) 지역 수요발굴과 확장을 위한 지자체 협력과 지원 시스템 구축
2. 운영체계	(1) 운영일수 등 구조화된 매뉴얼형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대안 필요	(1) 최소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관별 자율형 운영모델 개발과 실행
	(2) 수요와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유형의 대응과 전환 시기 지연	(2) 현행 참여자 고정형 운영모형 기반 참여자 가변형 운영모형 개발
	(3) 운영기관만의 특성화된 콘텐츠나 운영전략의 부재 및 편차	(3) 차별화된 주제 중심 특화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과 전략적 지원

분석 영역	주요 현안	정책 제언
3. 연계체계	(1) 타 돌봄사업의 변화로 명백하게 두드러진 차별화가 어려워짐	(1)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형 성장지원 모델로 차별화 및 역할 분담
	(2)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인지도 개선 필요	(2) 참여자 효과 및 사회적 영향중심 적극적 성과공유와 인지도 개선
	(3) 지역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와의 연계나 지원-협업기반 부족	(3)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반 운영기관협의체의 실무조직 운영
4. 지원체계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기구의 위상과 조직구조의 한계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고유사업화 및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2) 운영인력 소진에 대한 대책 및 직무 지속성 여건 부족	(2) 운영인력 힐링중심 소진예방 및 직무역량 향상 통합지원 활성화
	(3) 지역별 여건에 따른 콘텐츠 자원과 운영역량 편차	(3) 지역 맞춤형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플랫폼 및 지원단 운영

1. 전략체계 분야

1) 청소년 "성장" 지원 핵심사업으로 개념, 사업명 및 운영모델 재구조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로 동조의 제①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목적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목적과 성격도 법적 정의와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 중심으로 핵심가치와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장"은 청소년을 위한 "돌봄" 기능의 상위 개념으로 정의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지침에 핵심목적으로 반영하고 돌봄을 비롯한 기타 요소들은 이에 따른 하위 목표로 반영한다. 사업의 위상 또는 근거로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 사업'이 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딩 사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사업의 위상을 정리한다. 법령을 근거로 기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사업으로 확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성장이란 청소년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며, 가장 중요한 매개와 기반은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을 통한 경험이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지원 중심 돌봄의 기능과 정서적 안정과 안전, 미래지향적인 자립과 진로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으로 청소년의 주도적 성장을 체계화한 사업으로 성격을 정의한다. 돌봄 기능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돌봄정책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여 정책지원의 근거를 확보하며, 내부적으로도 돌봄과 안전은 참여 청소년 지원의 기본 요소로 중요하게 반영한다.

사업의 핵심가치나 성격 및 법령에 근거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사업 명칭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이미 정책사업명으로 브랜드화되었고 익숙함으로 인해 바꾸기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정경은 등의 연구에서도 '모든 국민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변경'해야 함을 개선 과제로 제안하였다(정경은 외, 2024,p.180). 청소년 대상 학습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 지원 사업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사업명을 근거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간단계로는 '청소년방과후종합지원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하위 사업명으로 병기할 수 있다.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이해를 돕는 명칭으로는 '청소년방과후활동센터'와 같이 사업개념의 센터 명칭을 적용할 수도 있다. 센터의 개념이 기관 조직,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적용되는 점을 활용한다. 또는 교육부의 '늘봄학교'처럼 방과 후 활동을 상징하는 사업명으로 새롭게 브랜딩할 수 있다. 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어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명으로 사업내용을 인식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전에 추진한 청소년 성장지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나 현재 진행중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 사업과 연계성을 갖게 된다.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자유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자기주도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용 체계로 본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성장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이 청소년활동의 이념과 가치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영 내용이나 체계는

두 사업이 유사하나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은 참여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통해 경직된 구조를 벗어나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연계 중심 운영 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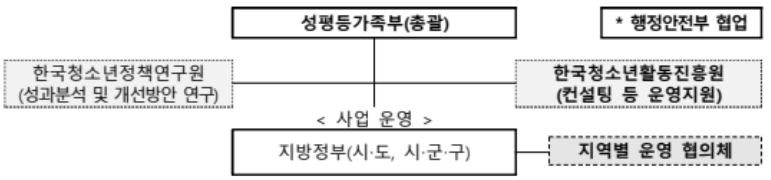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설에서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청소년성장지원 사업의 축소판 또는 원형 모델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성장 거점형 모델로 성격을 정의하고, 통합적 성장지원 시스템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확장할 수 있다. 지역중심 청소년성장 지원 사업의 운영모델로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을 재정의한다면 기본적인 돌봄기능도 포함하되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방과 후 활동지원 정책의 목적을 더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인구감소지역(행안부 지정, 89개 지역) 청소년 특화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체계)



* (성평등가족부) 기본 운영계획 수립,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및 역량강화교육 운영 등 지원, 우수사례 확산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자유공간 마련 지원
* (지방정부) 자기주도프로그램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및 지역별 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 주요 내용

○ (자유 공간) 각급 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 기존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 청소년 자유 전용공간* 마련

* 청소년의 수요를 고려한 소모임, 문화공간, (북)카페, PC존, 밴드 및 보컬 연습실, 댄스 연습실, 독서토론, 진로특강, 체험장 등을 위한 공간(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 (자기주도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 내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자기주도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 사업 등)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탐방, 도농교류, 문화예술체험 등 지역별 특화 사업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지자체·청소년단체(시설)· 학교 간 연계·협업 체계 구축

* 출처: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p.6

2) “청소년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 기반 국가 정책사업으로 위상 강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책추진 기반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사업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담은 중장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한 포괄적인 방과 후 활동 지원 정책을 반영한다. 시행령 동조의 규정상 계획수립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계획 수립 기간은 매년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연간 사업계획 개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추구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장기계획은 정부의 의지도 반영이 되며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의 사업방향의 기준이 된다. 아울러 관계자 대상 공유와 대국민 홍보나 정보제공을 통해 정책사업으로서의 인지도 향상에도 중요한 자원이 된다.

중장기 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은 5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되 향후 제8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2025년은 3년 중기계획으로 우선 수립한다. 2026년 이후는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사업추진이나 연도별 중점사항을 계획에 반영한다. 계획 수립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지원과 함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무기관으로 참여하여 정책수립과 실행의 연계성과 책무성을 높이도록 한다.

중장기 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 수립 이후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공식적인 발표와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중앙정부 핵심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또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책 브리핑 같은 일반적 방식도 포함하여 유관기관 설명회, 간담회 및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한 시민대상 정보공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담당부서와의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중앙 기본업무-지자체 협력업무를 체계화하고, 지자체별 중장기계획 또는 추진방안 수립을 지원한다. 일차적으로는 시·도 광역단위 정책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 현황이나 계획이 반영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정책 연계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단계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신규 운영기관 확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근거로 활용케 한다. 중장기 방과후활동종합지원계획에는 향후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정책평가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격려나 포상방안도 포함한다.

(3) 지역 수요발굴과 확장을 위한 지자체 협력과 지원 시스템 구축

2026년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른 지자체 수요발굴과 신청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와 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 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실태 및 자원, 요구를 통합한 종합조사를 통해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빅데이터 자원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인 표본 대상 수요조사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보유한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원 중심 조사를 실시하되 1차 조사는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는 자원 현황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면서 데이터 변경이나 추가사항을 관리한다. 필요시 전국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자원관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도 및 시·군·구와 정보의 공유 및 자원의 공동 관리를 통해 정책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4)에서 실시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수요 및 현황조사”는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자료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한다. 해당 조사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연차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조사기간별 비교 분석을 통한 경향분석을 토대로 장기적인 대응 전략 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별 표본 선정에 따른 데이터와 분석결과는 광역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재분석 후 지자체에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공동 과업으로 수행하여 데이터를 공유 활용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지특회계 전환에 따른 지자체 수요조사를 위해 기초 지자체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을 심층 조사하여 지자체의 지원 수준이나 확장에 대한 의지, 자부담 재원이나 지원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하여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지자체 대상 정책협의회 및 사전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2026년 기준으로 1차 협의회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참여도가 높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부족한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운영사례와 지원이 필요한 요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비롯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호 방문과 정보교류, 네트워크 DAY를 통한 만남과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방과 후 활동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참여도가 낮은 지자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성과 공유와 지역의 여건(대체로 재정이나 운영자원 부족 예상)에 따른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관심과 참여 동기를 제고한다.

2. 운영체계 분야

1) 최소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관별 자율형 운영모델 개발과 실행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내부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 환경 변화 및 운영의 효율성, 활동 프로그램 정체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 방식 및 행정시스템상의 운영기준을 고려하되 운영기관의 여건과 참여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운영체계를 도입한다. 단가에 의한 산출이 필요한 요소 외에는 예산은 포괄적인 총액제를 적용하여 운영기관의 사업방식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집행 방식을 적용한다.

(1) 기본 인원수 감축

청소년인구 감소 및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생활지원과 체험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별 기본인원 수는 15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개인중심 집중 지원이라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상대적 경쟁력을 유지한다(정경은 외, 2024,p.184). 다만, 운영기관의 역량과 지역의 수요에 따라 현행 20명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선택에 따르도록 한다. 인원수 변경은 예산 편성시 급식, 프로그램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허용한다.

기준 인원수 감축은 단지 실무자의 운영 편의성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며 운영인력 감소나 사업비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는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나누어주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면, 청소년인구 감소시기를 맞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청소년에게 얼마나 다양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 개인의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운영기준이 필요하다. 양질의 급식과 교통 지원 여건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위한 활동비 확보 등 인원 감축이 아닌

청소년 중심 서비스로 질적 개선이 목표여야 한다. 인원 감축형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취지의 반영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2) 연간 최저 운영일수 유연화

연간 최저 운영일수는 현재의 230일 기준을 재검토하여 전체 운영기관의 운영일수를 감축하거나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여건에 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영일수의 산출 기준은 청소년이 출석한 참여일수가 아니라 운영기관에서 실무자들이 근무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일수로 변경한다. 근무방식은 운영기관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일수뿐만 아니라 외부 직무연수에 참여하는 일수도 모두 포함된다. 현행 운영일수를 사업비 산출 및 운영기준으로 적용하여 총액 예산은 유지하되 운영일수 변경에 따른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 운영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돌봄 기능이 연중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운영일수 감축이 참여 청소년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주말체험활동 수요가 높은 경우 또는 주말을 이용한 지역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경우 전체 운영일수에 주말 프로그램 운영일수를 반영하고 주중 일수를 감축하여 수요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다.

(3) 출석요일 선택제 도입

주5일 출석을 의무로 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거나 출석 요일 선택제를 도입하여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주5일 중 청소년의 의무 참여일수를 주 3일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별도의 학습 수요를 인정하고 교과학습 지원 여건 부족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활용한다. 농어촌 지역 등 특별한 지원이나 개인적인 학습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나 지역 수요조사 결과 주5일 전체 기간 동안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현재의 5일제를 유지한다. 이는 현행 운영지침에 반영된 청소년 인원 중 30% 이내에서 개별 학습도 인정하는 방식을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요일 기준을 활용하여 확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참여일수 최저 기준이 변경되지만 운영기관에서는 주5일 운영일수가 유지되면서 청소년들의 활동 방식만 일부 변경되는 것이다. 급식비와 강사비는 변경될 수 있지만 자율 참여일수인 2일간에도 개인 요구에 따라 자율적인 활동이나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로 반영 가능하다.

주당 최저 일수 또는 요일 선택제 도입시 매주 활동 일수는 평일은 공통 체험활동 3일 출석, 개별 교과학습 2일(개인별 학원 교습, 학습 시간으로 자율 운영) 또는 출석 활동(개인 선택으로 학습 보충, 스터디 팀, 동아리 등) 체제로 운영한다. 가능한 한 주말은 월 1회 이상의 체험,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여 매주 3일+2일+(1일) 시스템을 적용한다. 공통활동 3일은 전체를 체험활동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자치활동과 일반체험 활동', '화요일-특성화 프로젝트 활동', '수요일-청소년 기획형 자율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활동 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일 선택제의 핵심이다. 동시에 학습 요구를 가진 참여자나 부모들에게는 학원 강습 참여 등 필요한 자유로운 학습 시간을 인정함으로써, 학원과 비교하여 사실상 수요자들이 만족할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학습지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4)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전환

강좌 강습 중심이 아닌 청소년 주도와 자율적인 체험활동으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매뉴얼의 프로그램 용어 소개를 보면 일반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체험활동 영역에는 강습 중심이 아니라는 설명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5. p.67).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강사 위탁 중심 운영 체계에서는 기능 중심 강습형 강좌운영이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사들은 청소년지도자로서 활동가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자로 참여하기 때문이고 청소년활동의 가치나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요구하기도 어렵다. 청소년 기획과 주도에 의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및 청소년활동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강사 중심 강습방식에서 청소년활동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은 청소년 자율 프로젝트 기간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 동일 강사가 전체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강사비는 전체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필요한 과정과 기간 동안 집행한다.

체험활동 운영 방식은 청소년시설의 일반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과 같이 재료비를 포함하여 활동비 중심으로 운영예산 편성 방식도 변경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현행 운영지침에 운영기관 실무자가 프로그램 진행시 강사비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 실무자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한다. 행정관리자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활동가의 정체성과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된 별도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체험활동을 직접 운영시 일정 부분 진행수당을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적용한다.

2) 현행 참여자 고정형 운영모형 기반 참여자 가변형 운영모형 개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 중 한 가지는 한 명의 청소년이 1년간 상시 참여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1년을 넘어 다년간 참여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참여자는 고정된 인원으로 관리되며 동일 예산으로 일회성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에 비해 청소년 개인 입장에서는 양질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크다. 하지만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주 5일 동안 매일 일정 시수 이상을 출석해야 하는 현행 방식은 전문적인 교과학습을 원하는 수요자의 참여가 어렵고, 운영기관인 청소년시설의 환경변화나 여건의 차이, 참여 청소년들의 거주지나 생활지역의 환경(특히 인구감소 또는 소멸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도심과 원거리 지역 거주 등)에 따른 지원 방안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참가자 고정형 방식을 기준모형으로 운영하되 참여자 환경 및 운영기관 여건을 고려한 자율 참여의 가변형 운영모형을 추가 또는 병행 운영한다.

(1) 자율형 운영 모형 도입

운영일수 및 주별 출석일수 기준의 변경을 통해 주5일 출석에 따른 기본형 외에 주3일 출석 체험활동과 주2일 자율학습으로 구성되는 자율형 모형을 운영한다. 청소년 출석을 기준으로 참여일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 수요에 대한 대응과 운영기관의 학습지원 여건 문제 해결을 통해 수요자의 여건과 요구에 따른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체험활동 기반 청소년 성장이라는 운영목적을 달성한다. 2005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시작 전 검토단계부터 주5일 출석방식에 대해서는 개인별 학습 요구의 현실적 반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반론과 요일 축소 의견이 있었다.

(2) 가변형 운영 모델 도입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이나 원거리 거주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고정형 시설, 공간 활용 방식 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활동 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여

가변형 모델로 분류한다. 수요자 거주지 중심으로 (On-Site) 지도자가 찾아가는 이동형, 매일 참여가 아닌 방과 후 주제 중심 지역 프로젝트 참여형, 고정된 시설에서의 활동과 거주 지역에서의 활동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형, 개인별 온라인 활동과 출석을 통한 시설에서의 오프라인 활동을 연계한 융합형, 도심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 정기방문과 전담 지도자 배치-활동에 의한 학교 연계형, 지역사회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한 지역시설 활용형, 시설 공간없이 지역사회 환경자원과 외부활동으로 운영되는 지역활동형 등 다양한 변형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경험하는 '방과 후'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3) 공간 유형에 참여자 자율 운영방식 추가

시설 공간유형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시설(다른 유형의 운영기관 고정시설 포함) 기반의 참여자 고정형 외에 청소년 자유공간이나 청소년카페를 활용한 참여자 자율형으로 운영공간을 확장하여 참여 수요도 확대한다. 최근 지자체마다 청소년수련시설 외에 청소년들이 카페처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도 카페 형태와 같이 청소년 자율공간이 확보된 경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설이나 기관 여건상 고정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자유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4) 자율형 회원제 도입

참여 청소년 대상 회원제를 운영하되 현재의 고정형 회원제 외에 자율형 회원제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참여 방식은 기관 여건이나 프로그램 특성, 참여자 요구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정된 회원 대상의 집중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 여건을 갖춘 곳은 현행 고정 회원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고정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관에서는 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방과 후 시간대에 맞추어 운영을 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회원들은 일주일 중 일부 요일이나 시간을 선택하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기관에서 정해한 체험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간제형 자율참여 방식도 가능하다.

3) 차별화된 주제 중심 특화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과 전략적 지원

특성화 전략에 대한 요구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고유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차별성을 통한 수요자 참여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책사업에서 중복성은 사업의 통, 폐합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환경변화나 수요자 요구 반영의 기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차별성 및 필요성, 효과중심의 성과를 확보하면서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기관별 특성화 전략에 의한 운영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나 대안을 제안한다.

(1) 특화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

청소년특화시설과 같이 '특화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를 발굴하여 지정하거나, 자체 모형 개발을 통해 신청-인증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운영사례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수요 및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평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 영상미디어 보기와 게임을 합하면 38%이고, 평일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 활동도 두 가지를 합하면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4, pp.23~26).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미디어 특화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 전체 프로그램을 100% 미디어-영상-게임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2) 장르 중심 특성화 운영 모델 개발

운영기관의 환경 여건이나 자원 확보 수준,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제 또는 콘텐츠 장르 중심 특성화 운영 모델을 운영한다. 이는 현재도 다수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정 분야 콘텐츠로 특성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부 프로그램 시간배정이 아니라 일종의 '거점'이 되는 수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국가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꿈의 예술단' 사업이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로 시작하여 '꿈의 무용단','꿈의 극단'에서 '꿈의 스튜디오'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명칭 중 하나가 운영기관을 거점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단원 대상 매주 프로그램 운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해당 기관이 해당 장르기반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주제 또는 콘텐츠 영역 중심으로 '콘텐츠 거점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운영과정 설계의 핵심으로 적용한다.

(3) 프로그램 차별성 강화

기존 유사 콘텐츠나 주제로 특화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수준과 방식으로 특화형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를 설계한다. 현재 체험활동으로 적용된 진로개발활동이나 창의융합활동, 정서지원 활동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개발하여 특성화할 수 있다.

(4) 장애형/다문화형 운영 확대

장애형과 다문화형 운영을 통해 참여 청소년 유형에 대한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 청소년 유형에 따른 특성화 방안은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다. 다문화형이나 다문화 프로젝트를 특성화하고자 할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재단과의 협업이나 지역의 다문화관련 기관, 대학 및 기초지자체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협업체제를 강화한다. 장애청소년 특성화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전문기관 연계와 함께 이음센터(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같은 특별한 분야의 전문기관 연계로 콘텐츠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찾아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모델 개발

고정형 공간과 고정된 청소년 구성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청소년을 찾아가거나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방과 후 운영 모델도 검토한다. 경기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은 '사잇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4년에 이어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상중심 특성화 프로그램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이동형 또는 요일선택제형 문화예술창작 중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방과 후 개념이 학교를 다닌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나 청소년 입장에서는 소속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지역사회에

서의 활동 경험이 되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개념상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하게 된다.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 입장에서 방과 후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아야 한다.

(6) 생애전환기 특화형 운영 프로그램 개발

1월 또는 3월부터 시작된 고정된 1년 동안의 기간 운영 방식을 변형하여 생애전환기 연계형 특화 모델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에서 중학교 1학년 기간 내에 운영되는 대상 및 기간 특화형 운영방안을 개발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는 청소년 개인에게 매우 큰 경험의 전환, 생활환경의 변화 시기이며 새로운 친구 관계의 형성이나 학습 준비 등에 고민이 커지는 시기이다. 졸업을 전후로 일종의 연계형 또는 다리가 되어주는 운영 방식과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단기형 운영과정으로 특성화 한다. 중학생 대상 운영기관의 준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해당 기간에만 운영하는 프로젝트형 운영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학교 조사와 섭외, 참여 대상 사전조사와 면담·체험 등 사전활동 운영(라포와 관심 유지), 연계 프로그램 및 특화 콘텐츠 개발, 운영 관리와 사후 중학생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 등 연중 업무를 상시 운영한다.

3. 연계체계 분야

1)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형 성장지원 모델로 차별화 및 역할 분담

현재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부처의 지원 정책은 각 부처별 서비스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연계-협력에 의한 아동과 청소년 중심 지원체제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부처 간 주도권에 대한 논의나 통합 관리 지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각 분야마다 누적해 온 특화된 성과와 이를 통한 수요자 선택에 의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안내와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수요자로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방과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수요자인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서정아 외, 2024,p.81). 특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로 대표되는 방과 후 지원 사업은 장점과 특징이 다르고, 이를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고유성 확보와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활동 기반 성장 지원의 핵심 주체로서 본래의 목표와 기능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방과 후 영역이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 후지만 청소년의 생활 관점에서는 학교를 벗어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의 방과 후 시간이나 학교 밖 공간 개념이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의 청소년활동 지원체제가 청소년활동 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다른 방과 후 사업과 비교하여 강조할 차별성은 참여자의 지속성과 매년 참여에 따른 성장의 가능성(초등-중등 연차별), 성장 지향 활동 프로그램, 통합적 운영체제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 청소년들 간의 관계 및 운영인력과의 깊은 관계 형성, 급식과 교통 및 정서를 포함한 지원의 다양성 등이 있다. 운영기관 실무자 면접 결과 안전취약지역에서는 안전한 보호자 역할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 센터별 여건 및 지원환경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편차가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 기반이 확대되고 아동 주도 및 참여형 프로그램이 추진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의 방과 후 교육이나 돌봄사업의 경우 일회성, 단발성 프로그램이나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온종일돌봄교실 또는 늘봄학교 등 국가 차원의 정책추진 체제 강화 후 관련 부처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과 후 사업마다 청소년 경험의 질적 성장과 확장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서비스 체계마다 가지고 있는 차별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단순 돌봄과 차별화되고 청소년 주도의 자기 성장을 위한 종합 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차별성의 강조는 우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방과 후 지원 사업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학교 중심 방과 후 지원 사업 추진 시에도 교육부에서는 다른 부서의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연계 및 지원 대상은 참여자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의 관계이다. 성평등가족부에서 교육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취지와 지역 학교에서 공공정책에 의한 청소년 방과 후 지원사업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제는 학교의 방과 후 돌봄사업이 확대되면서 외부로 학생을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이다. 하지만 학교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학교를 벗어나 다른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도 교육적,

사회적,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해야 한다. 방과 후는 학교 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학교 밖의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안의 간접적 경험만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와 관계 설정에서 기준을 삼아야 할 부분은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직접적 경험에 가장 유용하며, 이는 학교의 교육과 상호 보완되는 기능이라는 점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인구소멸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은 소규모 학교, 입지 여건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학교 안에서의 방과 후 활동이나 지역사회 자원 활용도 한계가 있다. 황진구 외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보다 농산어촌 중학교 연계에 의한 방과 후 서비스 수요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황진구 외, 2024, p.109). 방과 후 교육 지원이나 자체 자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우선 집중지원 지역의 선정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의 실현을 위한 수요가 있는 학교 중심 접근 방법이 청소년정책에서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특화형 콘텐츠 중심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 시 상호 도움이 될 것이다.

2) 참여자 효과 및 사회적 영향중심 적극적 성과 공유와 인지도 개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역의 수요자 및 지역 관계자, 기관 중심으로 지역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들로는 지역 구성원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긍정성, 인지도와 관심, 프로그램이나 지원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참여도 등이 있다. 지역사회 연계와 친밀한 관계 형성은 지역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식하는가에 달렸다는 뜻이다. 참여자 모집의 선순환과 악순환은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이룩한 성과의 공유와 공감 정도에 따라 달잘 질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 개인이나 사업 자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1) 효과성 조사결과 공유와 확산

매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뢰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의 다양한 공유와 개별 운영기관 차원에서의 지역 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리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이

1년간의 활동 경험을 통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구체적 데이터와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적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별 운영기관별로 데이터와 자체적인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실적 수치로 알 수 없는 사례중심의 성과도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자칫 개인의 사례로 국한되기 보다는 운영 전체의 성과와 사례를 통해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는게 중요하다. 향후에는 핵심성과지표 체계 도입을 통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역사회와 청소년에게 미친 장기적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성과-영향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2) 성과중심 평가체계로 개편

인지도 제고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과 참여 청소년의 성장을 중심으로 질적 성과중심 평가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본 업무에 대한 행정점검, 운영내용과 성과관리 여부에 대한 진단 평가(인증방식 유사)를 통해 운영평가는 일정 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여 평가부담을 경감시킨다. 성과중심 평가를 위해 운영기관별로 다양한 성과관리 결과나 사례 중심 공모-심의를 통해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성과를 통해 지역 구성원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현재는 과거의 종합형 지표에 비해 일반 업무를 제외한 사업중심 평가지표로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일정 수준이상으로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시스템의 효율성,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평정기준 운영체계의 전환방법을 예로 들면, 성과개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업별로 달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또는 평정에 의한 인정기준을 정하여 기준 도달 여부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총점 보다는 기준 점수 달성 여부가 인정 또는 인증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5점 척도에 의한 수준 평가가 아닌 달성 여부 판단 또는 3단계 평가로 2단계 이상이면 충족으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 업무 대상 평가에 따른 운영기관 및 실무자 부담은 줄이되 운영사례나 효과성, 영향평가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 다만, 기준 달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모든 요소마다 해당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점과 진단을 통해 운영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과 개선방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3) 평가 환류시스템 개편과 강화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및 개선방향 피드백을 통한 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운영기관 자체평가에 의한 내부의 환류 시스템 및 종합평가를 통한 제도적 평가 환류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한다. 현재 종합평가 시기는 매년 평가가 아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평가의 시기는 5~6월이며 2024년,2025년은 서면평가를 적용하여 현장실태를 충분히 알기는 어려웠다. 평가의 활용 문제, 평가 연계 컨설팅 제공, 의무 컨설팅과 희망 컨설팅의 효용성 확인, 최우수기관의 동료 컨설팅은 평가관리의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평가 보다 외부 종합평가 준비, 자체 피드백 부족, 종합평가와 컨설팅 연계의 미흡, 평가를 통한 변화 대응 체계의 구체성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매년 초로 설정하고 모든 운영기관에 대해 구체적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지원한다. 평가지표의 경우 포괄적이어서 모든 업무를 다 반영해야 하는 지표보다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핵심성과지표를 분류하고 성과제고에 관련된 과업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여 선정-편성한다. 운영기관의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연중 평가 피드백을 위해서 투입-과정-산출-결과-영향에 따른 논리모형 기반 평가지표 체계를 제공하여 단계적인 환류로 성과의 질을 개선한다.

(4) 사업 인지도 조사 정례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 내 홍보활동이나 성과공유를 통한 인식 향상 수준, 또는 사업운영 전체의 성과 공유와 홍보를 통한 전국적인 인지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인식 수준이나 인지도 측정은 정책 담당자나 운영기관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객관적 데이터 없이 정책이나 사업방향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과업이다. 전국 단위 홍보나 성과공유 차원에서 보면 특별한 홍보 전략이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에는 정부차원의 구체적 계획과 추진이 필요한데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전략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접 수혜자 외에는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수준일 수 있는데, 현재 사업명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종합성장 사업으로 대대적인 방과 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홍보 전략과

함께 구체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홍보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특성화 전략이나 청소년 주도의 지역참여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정책 제안과 환류 체계는 대다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지역기반 프로젝트를 지역 청소년참여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한다.

3)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반 운영기관협의체의 실무조직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청소년수련시설 등 운영기관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1개에서 수개의 운영기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의 활동기반 구축이나 자원연계를 위해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체의 연계와 협력 구조가 탄탄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연계와 지원 기능 강화

지자체 단위 활동의 안정성 및 지원기반 확보를 위해 광역단위-기초단위 지원기반을 지정하거나 연계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전달 체계로는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중심의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플랫폼 구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에 의한 광역단위 시·도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는 임의규정으로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일부 시·도센터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협의회를 지원하거나 종사자 워크숍이나 기타 지원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인 지원-연계 협력망 구축의 핵심 허브로 시·도센터를 플랫폼 기구로 운영하되, 이 경우 운영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2) 자체적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과 실무조직 구성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지역중심 청소년활동의 생태계 조성과 운영의 핵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체적인 연계망 구축과 실무조직 운영을 통한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 성장지원의 핵심 모델로 기능과 위상을 확보할 경우 정책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의 지지도는 결국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는데, 연인

원에 의한 청소년 참여자 수와 같은 실적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 지역 전체의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체감중심 성과를 위해 내부적인 협업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협의체를 조직하되 단순한 내부 협의나 친교 모임으로 운영되기보다 상호간 공동사업이나 정책기관에 대한 제안과 협의가 가능한 실무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지원체계 분야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고유사업화 및 '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위탁 대상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중심으로 정책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를 시·도 단위까지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고유사업으로서 법적 근거 강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임시 위탁한 것처럼 운영되는 현재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와 사업에 관한 규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항에 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위상을 확보한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 제1항에 의한 '중앙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되 법령에 의한 명칭을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센터의 조직 및 기능은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모두 수행한다.

업무 영역으로는 기본적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정책과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와 함께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현행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기능을 구체화한다. 조직의

위상은 부서 단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 업무의 포괄성 수준이나 업무의 체계와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정한다. 예산은 고유사업 편성에 따른 기본예산에 반영하되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평가사업 등 개별적인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제4항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력은 2025년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담당 4명 외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정책 전반에 대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정규직 직원을 추가 충원하되 진흥원 내부의 인력 운영 기준(정규직원 수 관리 등)을 반영한다.

(2) 시·도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5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시·도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 방식은 현행 규정으로 위탁 단체를 지정해야 하는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정책전달 체계에 따라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과업의 범위는 해당 광역 지자체의 지역 범위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 범위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센터명으로 설치되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활동안전지원 사업에 추가 인력이 배치된 사례가 있으나 정규직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 조정 및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시·도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일부 기능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지역의 종사자 교육이나 평가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에 법령에 명시된 전반적인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력 충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협력조직으로는 시·도 단위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의 협의체 조직을 지원한다. 시·도방과후활동지원센터에서는 협의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전담하여 지원하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현실적인 기능상 시·도 단위에서는 종합적인 방과 후 활동보다 현장중심으로 청소년방과아카데미를 통한 광역단위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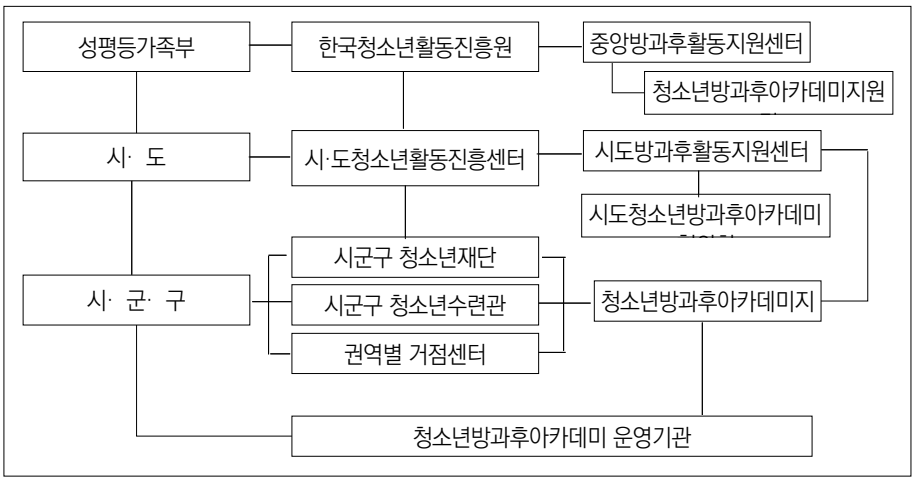


그림 Ⅳ-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체계 모형(안)

(3) 지자체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단' 구성

시·군·구는 지자체의 행정지원 기능과 지역별 지원기구의 협업에 관한 직접적인 운영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실행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단'을 구성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지원센터까지는 법령에 의해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의 경우 법령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운영지원 체계로 본다면 현장 운영기관 입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 규모나 여건을 반영한 지원 기구를 조직한다.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이미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내 다수 시설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인 청소년수련관을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초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 경우 국가의 보조사업비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추진 기반을 확보케 한다. 군 단위 지역과 같이 지자체 자체의 지원이나 소수의 운영기관이 있는 지역은 3~5개 시·군 권역별로 통합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충청북도를 권역별로 구분하고 권역별 거점 청소년시설을 지정하여 연계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권역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또는 방과 후 활동 지원 거점 모델의 시범 사례로 우선 선정하여 운영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중앙 및 시·도와 같이 종합적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 기능에 집중하여 실무적인 활동을 진행한다.

2) 운영인력 힐링 중심 소진예방 및 직무역량 향상 통합지원 활성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질적 개선과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영인력의 역량이지만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경력개발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의 만족도와 열정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최근 감정노동자 대상의 소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의 경우에도 일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소진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와 함께 직무역량 개발과 향상을 통해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 근무 안정성과 지속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소진예방과 직무역량의 통합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 행정관리체계 간결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업무수행 태도나 수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행정업무 처리의 양과 절차의 적정성으로 행정 관리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청소년활동 중심 업무와 성과 아카이빙 비중을 높이도록 한다. 서류기록 중심의 행정 시스템은 청소년 개인 신상부터 면담, 활동 기록 및 예산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하나의 기관 운영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초기 단계에 비해 필수 서류를 줄이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직무 기준으로 행정처리와 문서기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선을 위한 진단은 부족했다. 전산 시스템의 적극 활용이나 AI 툴의 활용을 비롯한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행정처리 방식도 개선하되 필수 서류 외에는 운영기관 여건에 따른 자율적 행정관리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 운영인력 처우의 획기적, 실질적 개선

지속적 근로의 의지나 참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운영인력에 대한 처우문제로 실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20여년 동안 지속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해결이 필수 불가결하다. 처우와 관련해서는 양적 개선과 질적 개선 모두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유사 서비스와의 급여 기준의 형평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운영기관 내에서 팀과 운영인력 본인의 위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성과가 지역에 공유되고 인정을 받을 때의 직무 만족도, 처우문제나 업무수행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지원 시스템도 동시에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3) 운영인력 대상 종합교육 시스템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와 운영인력 요구, 사회적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직무역량 개발 과정을 전문화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성과와 현업 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교육 시스템을 운영한다. 우선 현재 운영지침상의 교육이수시간 기준을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운영예산에 충분한 직무역량 개발비를 반영한다. 직무역량 개발은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 운영뿐만 아니라 직원 소진예방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힐링 워크숍 1주간, 전문교육 1주간의 기본역량 개발을 기준으로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직무역량 과정을 운영한다. 기관별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운영인력 모두 참여하는 과정이 효과적인데 현재 최저 운영일수는 운영인력의 대외적인 교육참여 기회에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는 사업 구조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 문제로 외부 활동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직무교육을 위해 운영일수를 감축하는 것이 역으로 더 우수한 품질의 청소년활동과 성과를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4) 연간 교육과정 선정 및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직무 및 운영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직무역량과 이에 따른 교육전략,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 후 연간 교육과정을 선정-편성하여 운영한다. 시의성이나 단기적인 요구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될 경우 역량개발보다는 단편적인 기능 실습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 운영인력의 참여 기간이나 업무 수행 수준과 이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해형 과정과 실습형 과정 요소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한다. 특히 전달방식 강좌보다는 문제해결 중심의 워크숍이나 실습형 방법 비중을 높인다. 운영사례 분석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사례전달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례를 활용하여 운영기관별 여건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창작 실험이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이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나 오프라인 교육과의 연계형 방식과 함께 온라인이어도 단순 영상시청이 아닌 실시간형 워크숍이나 실습, 토의 토론이 포함된 방식이 필요하다.

3) 지역 맞춤형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플랫폼 및 지원단 운영

지역의 여건 차이나 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단을 통해 직접적인 실무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1) 플랫폼 운영 사업비의 근거 확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플랫폼은 중앙단위-광역단위-기초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하되, 운영지원 체계에 따른 방과후활동지원센터가 전반적인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설치 지역 내에서 수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플랫폼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원 플랫폼 운영기구를 지정한다. 중앙과 광역의 방과후활동지원센터에서는 기초지자체별 지원 플랫폼 운영 기관에 필요한 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플랫폼 운영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2) 운영 지원단 구성

기초지자체 지역 단위 지원 플랫폼 운영기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중심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일회성 일방적 자문 중심 운영보다는 운영기관 요구에 따른 연중-상시 자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공동 워크숍(일정 기간동안 운영), 기타 수시 지원활동을 진행한다.

(3) 특화 프로그램 전문인력의 연계를 통한 운영 유연성 확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으로 소규모 청소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 학교나 마을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방문에 의한 방과 후 활동(예: 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장사업으로 정기 방문형 프로그램 운영) 등 비고정형, 자율형 운영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지원단은 프로그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계-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종의 지도자

풀을 운영할 수도 있고 방문이나 지원 대상 장소에 전담자를 매주 파견할 수도 있다. 1인의 지도자가 다수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들과 만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활동 장비 공동 은행제 운영

이동이 가능한 기본적인 디지털 장비를 비롯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의 공동 은행제를 운영한다. 개별 기초 단위에서는 일상적인 도구나 재료를 공동 활용하되, 구입비용이 필요한 장비나 도구는 광역단위에서 공동 이용을 위한 장비 플랫폼(장비 구입/임대-목록 공유-신청 및 활용-사후관리)을 운영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3),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2023~2027).

기획재정부(2025).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기획재정부

김우림(2021). 저출산대응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김혁진(2024),“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성화 전략의 이해와 방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온라인 직무연수 자료(미간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정아, 장여옥(2024).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연구보고서24-수탁20.

성평등가족부(2025), 2025년 12월 3일 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장책포럼 개최”.

여성가족부(2025),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0), 201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를 위한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201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를 위한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5), 2010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채정(2016). 아동복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자립지원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경은, 강영배, 장여옥(202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개편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2).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여성가족부 https://

www.ypec.re.kr/mps/administrativeData/youthSupportByTarget/afterSchool?menuId=MENU0039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수요 및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4). 청소년 방과 후 활동(생활) 수요 및 현황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황진구, 김윤희(202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 록

부록

1. FGI 문항

방과후 아카데미 발전 방안에 관한 면담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다양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는「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수요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5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현장운영자이자 전문가이신 지도자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면담 조사에 포함된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속이나 개인적인 배경은 연구보고서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면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직급		성별	
경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년, 그 외 경력 (, 년)				
소속기관명				지역	
지역 구분	광역시/특별시( ) 중소도시 ( ) 읍면 지역 ( )				
직책	팀장 ( ) 담임 ( ) 주말형담당자 ( )				
운영 유형*	① 기본지원형 ② 농산어촌형 ③ 특별지원형(장애) ④ 특별지원형(다문화) ⑤ 인원축소형 ⑥ 주말형				
운영 대상*	① 초등학생 약 ( ) 명 ② 중학생 약 ( ) 명				
e-mail					

* 중복응답가능

PART 1. 기초 정보

○ (소속기관 정보)
- 현재 소속되신 기관명
- 기관의 소속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지역의 특성

○ (활동경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참여·업무를 담당하신 기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이전 타 기관이나 사업 경력 (있으신 경우)

○ (직책)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담당하신 직책

○ (운영유형)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유형 (중복 가능)

○ (운영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대략 몇 명 인지 (중복 가능)

○ 이메일 주소는 이후 수당 지급등을 위해 필요

*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항목

PART 2. 참여 계기 및 중요성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 언제쯤, 어떤 계기로 근무하시게 되었나요?
   - ◯ 근무를 시작하실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 ◯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신 지금은 그때 가졌던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장 특별한 성장 기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학습 지원 등 여러 측면 중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느끼시나요?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실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전달되었다고 체감하셨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PART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수요

1. 현재 거주 지역 또는 근무 기관 내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 청소년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 학무모들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 기존에 운영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정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정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얼마나 충원이 필요한가요?
   - ◯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접수되는 방과후 돌봄, 학습, 진로지원 등에 대한 요구는 주로 어떤 내용이 많으며, 그 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최근 경험하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현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지역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프로그램, 정원, 서비스 내용 등 어떤 부분에서 변화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 청소년과 학부모의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야 할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 현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예: 학습지원, 정서·심리상담, 돌봄·생활지원, 진로탐색 등) 중에서, 현장에서 볼 때 가장 꼭 필요한 서비스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 4. 타 서비스와의 차별성

1. 다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돌봄교실이나 사설 방과후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만 제공되는 고유 서비스나 특별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돌봄교실이나 사설 방과후 프로그램 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선호하는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있었나요?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강점(예: 안전한 장소, 무료 또는 저비용, 전문체험활동, 생활관리 등)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느끼시나요?
   ◯ 학부모와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돌봄교실·사설프로그램과 비교해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기존 돌봄교실이나 사설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학부모와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돌봄교실·사설프로그램과 비교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 각 프로그램이 가진 운영 방식, 지원 대상을 바탕으로 볼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약점이나 실제 현장에서 느낀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ART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방안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 지금까지 말씀하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부족한 점 중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어떤 지원(예: 예산, 인력, 시설, 교육훈련 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방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 종사자 입장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 ◯ 종사자 입장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발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예산, 인력, 프로그램 질 관리 등 다양한 영역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 현장에서는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제도적 지원이나 소통 방식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공적 기능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향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정책 방향이나 사업 운영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현장 사이의 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국문초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사업 이후 2025년 현재 355개소로 확대되었으나, 돌봄·방과후 사업의 고도화와 학교 중심 돌봄 강화 속에서 초기 지향이었던 활동·복지·보호·지도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활동 중심 모델로서의 차별성이 약화되었으며, 법적 근거·재정구조·운영모델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문헌·정책통계 분석과 우수사례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사업의 전략체계, 운영체계, 연계체계, 지원체계 등 4개 영역의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지자체 수요와 청소년 활동·성장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사업 정체성이 돌봄·복지·활동 가치가 혼재된 상태에서 '시혜적 돌봄' 이미지가 강화될 위험이 존재하고, '아카데미'라는 명칭과 중장기 법정계획 부재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당 20명, 연 230일, 주 20시수 등 학교 교육과정형 시간표에 근거한 경직된 운영기준은 청소년에게 '학교 밖 또 다른 학교' 경험을 유발하고, 학원·타 돌봄과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지역·계층·디지털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제(디지털·AI·기후위기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늘봄학교 등 타 방과후·돌봄정책의 확대에 따라 연령·내용·운영철학 차원의 명확한 차별성이 약화되고, 학업·심리·역량 향상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홍보 및 네트워크 기반 연계가 미흡해 인지도와 참여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넷째, 중앙·시도 지원조직의 법적 위상과 인력·기능이 제한적이고, 현장 종사자는 낮은 처우·계약직 중심 구조·높은 감정노동과 행정 부담·비체계적 직무교육 등으로 소진과 역량 편차가 심화되어 청소년 경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단순 돌봄사업이 아닌 청소년 주도 성장·체험을 지원하는 종합 성장 지원 모델이자 전국 청소년 성장 인프라의 '원형 모델'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성장지원 중심 개념·명칭·운영모델 재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자율형·가변형·특화형 운영모델 도입, 타 돌봄정책과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연계·성과관리·홍보체계 강화, 중앙·시도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처우·역량 제고 등 다층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Youth After-School Academy in Korea has expanded to 355 sites as of 2025 since its pilot launch in 2005, but its initial distinctiveness as a comprehensive, activity-centered model integrating programs, welfare, protection, and guidance has been weakened amid the advancement of general care and after-school services and the reinforcement of school-based care, raising the need for a full-scale overhaul of its legal, financial, and operational framework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key issues of the Academy in four domains—strategic framework, operational system, linkage system, and support system—through literature and policy statistics analysis as well as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n leading local cases, and to deriv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s that reflect both local government needs and adolescents' needs for activities and growth. The analysis reveals, first, that the project's identity is at risk of reinforcing a "charitable care" image due to the mixture of care, welfare, and activity values, while the label "academy" and the absence of a statutory mid- to long-term master plan undermine its status as a youth growth-support policy. Second, rigid operational standards based on a school-type timetable—20 students per class, 230 operating days per year, and 20 hours per week—tend to create an experience of "another school outside school" for adolescents,

make it difficult to combine participation with private tutoring and other care services, and fail to respond adequately to regional, socio-economic, and digital changes and to emerging agendas such as digitaliz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limate crisis. Third, as other after-school and care policies such as community child centers, local care centers, and the Neulbom School program have expanded, the Academy's distinctiveness in terms of age range, content, and operational philosophy has weakened; although positive outcomes in academic, psychological, and competency domains are repeatedly confirmed, limited dissemination of results, weak public communication, and underdeveloped networks constrain awareness and participation. Fourth, the legal status, staffing, and functional capacity of central and regional support organizations remain limited, while field practitioners face low remuneration, a high proportion of fixed-term contracts, intensive emotion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and fragmented in-service training, leading to burnout and capability gaps that translate into unequal experiential quality for participating adolescents.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restructuring the Youth After-School Academy from a simple care program into a comprehensive growth-support model that promotes youth-led growth and experiential learning and serves as a "prototype model" for a nationwide youth growth infrastructure, and presents multi-layered policy tasks including redefining the concept, name, and operational model around growth support under the Youth Basic Act,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upport Plan for Youth After-School Activities," introducing flexible, variable-participation, and specialized operational models, strengthening role-sharing–based linkage, performanc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with other care

policies, and setting up central and regional youth after-school activity support centers with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nd professional capacity-building for staff.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헌·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수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송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낭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헌·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헌·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깅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헌·김영인·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헌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헌·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 크 숍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9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